

전략과제 2016-21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권영현·방재성

발 간 사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한 관심과 노력들이 경관과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일찍부터 경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청 내에 공공디자인팀을 조직하고 충남연구원 내에 공공디자인센터를 두어 우리 지역의 미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경관이라는 정책 수단이 실제 적용하여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주는데 한계가 있어 과급과 인식확대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업 중 하나인 ‘경관기록화사업’은 경관자원의 변화과정을 유형별, 주기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자료와 사료(史料)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진 기록물이 구축되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도 쉽고 해당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미 몇몇 광역시에서 추진되었고 그 성과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정체성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목적 외에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경관기록화사업에 활용되는 경관기록의 목적, 대상 선정의 기준, 대상 선정방법, 기록방법, 자료 활용방안 등 전체적인 체계 등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여러 유형의 문화와 경관자원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둔 시기에 활용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애써주신 권영현 선임연구위원과 방재성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자문위원, 현실적인 연구가 되도록 많은 의견을 내 주신 각 시·군의 경관담당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가 외형적인 개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격조 있는 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저희 연구원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연구 요약

국토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된 후 지역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활용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경관이라는 대상의 어려움과 집행력의 한계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부족 등으로 파급 및 인식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관법에 명시된 경관사업의 일환인 경관기록화사업은 지역의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사료 및 홍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관기록화사업은 경관이라는 대상이 갖는 난해함과 활용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록물인 사진 자료를 통한 시각적 활용방법으로 일반 주민의 활용 및 지역 자원으로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 보존과 유지를 위한 사료로서의 경관기록과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경관기록화사업에 활용되는 경관기록의 목적, 대상 선정의 기준, 대상 선정방법, 기록방법, 자료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 등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경관자원과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기록과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둘째, 구축된 경관기록 자료를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의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이용하며 도시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셋째, 충남 경관기록화사업의 범위, 기록방법, 자료의 구분 및 활용 방안을 제시를 통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의 경관기록화 사업 추진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수행했던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시·군 경관 담당자의 인식도조사와 충청남도 시·군에서 수행한 경관기본계획에 나타난 경관자원의 유형 분류와 대표 자원을 통하여 일관성과 지역 개별성이 조화를 이룬 유형 체계를 도출하며 광역도라는 일관성을 갖추기 어려운 여건에서의

기록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진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경관기록화사업이 이루어진 4개 광역자치체인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관기록 사업의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기획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기획연구를 통해 기록대상의 선정, 기록 방법, 활용방안 등 핵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각 사업에서 기록대상의 선정에 활용된 자료로는 크게 ①경관 보고서 및 문헌 위주의 문헌자료, ②신문 및 인터넷에 소개된 매체 노출도, ③정책 사업이 이루어진 대상, ④경관 관련 수상 실적 및 선정, 활용이 빈번한 대상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관 자원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경관계획 상 제시된 경관유형이나 경관자원이 우선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도시이미지, 생활상, 관광 홍보 등 보완적인 자료와 요소들을 선정기준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촬영)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구체성 및 원경 등 거리의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획연구의 시기에 따라 구체성을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되어 기록화된 자료의 활용방법에 있어서 기록집(화보집 발간), 도시경과 웹사이트 또는 아카이브구축, 전시회 개최로 요약되고 있다. 탑재된 기록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타 지자체의 사업 추진 과정과 활용방안을 고찰해 본 결과 충청남도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반 및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사업 추진근거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도차원에서 시·군을 총괄하고 선도하는 통합적인 추진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추진근거를 토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한 후, 기획과제의 수행과 시범 사업의 추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 전체와 개별 시·군에 통용되는 일관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갖춘 추진 방법, 경관 기록 대상 유형의 체계화, 대상 선정 시 판단 및 평가 기준 도출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환경에 작용될 수 있고 연속사업의 추진 시 일관된 방안으로 자

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록 방법 및 저장형태에 대한 기준이 요구된다.

다섯째, 경관기록집, 전시회, 홈페이지 또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보편적인 활용 방법 외에 시민이 참여하는 활용방안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관사업 및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 본 결과, ‘경관기록화사업’을 중요한 경관사업으로 인식은 부족한 반면, ‘경관교육 및 홍보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관사업 관련 예산, 조직, 인력구조를 볼 때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중장기 경관사업 마스터플랜과 예산 확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관기록화사업 더 나아가 경관사업의 주안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기록화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이 참여하되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관기록화사업을 타 경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경관사업인 교육·홍보사업과 연계와 경관계획 내의 경관사업 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군 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경관사업 중 교육 및 홍보사업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된 사업의 추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충청남도의 경관기록화 사업 도입에 앞서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경관 자원과 현황을 고찰하고 경관기록화 사업이 진행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과정을 고찰한 결과, 경관 기록화 사업을 대비하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여야 할 부문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경관기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 등에 명시하여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나 지자체의 시책사업으로 정하여야 되는데, 현재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간접적으로 명시된 조항을 근거를 유추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관

기록화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2. 경관기록화사업의 인식 확대

삶의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총체적 수단인 경관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인식이 태동되면서 제도 및 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확대 계기가 요구된다. 현재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관련과목을 개설하고 비중을 확대하거나,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을 통한 커리큘럼 개설로 경관의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록 체계의 균일성 마련

경관기록화사업은 균일한 관점과 체계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지이다. 충청남도과 같은 광역도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소재를 일관되게 기록할 기준과 기록방안에 대한 정립과정이 우선 요구된다.

도가 주관하여 시·군을 총괄하고 선도하는 통합적인 경관 유형 및 분류 체계가 마련되고 추진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과제를 통하여 도 전체와 개별 시·군에 통용되는 일관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갖춘 추진 방법과 경관 기록 대상 유형의 체계화, 대상 선정 시 판단 및 평가 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

4. 예산 확보 방안

경관기록화사업은 다른 경관계획이나 실행사업과 같이 사업 추진에 따라 수반되는 유리한 평가나 실질적인 결실을 낼 수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다. 기록화사업은 기본 계획 못지않게 해당 지역의 경관 가치를 재인식하고 역사적 자료 및 지역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실행 사업 항목과 별도로 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광역도라는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광역시 차원과는 다른 영역 및 다변화된 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분류 및 가공, 데이터베이스화 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가 주관하고 선도 시·군이 참여하는 기획연구 단계 및 본격적인 기록화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활용의 다각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활용방안이 경관기록집, 전시회, 홈페이지 운영의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흥미와 감성을 겨냥한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구축된 자료를 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는 운영방식 및 초·중·고학생을 겨냥한 가상현실 교재 등의 개발로 경관 및 자기 고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초기에 형성하도록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9
제2장. 이론 및 법제 고찰	10
1. 경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0
1) 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10
2) 경관유형과 경관자원	11
2. 선행연구	16
1) 선행연구의 검토	16
2) 선행연구의 시사점	19
3. 관련법령 및 조례 고찰	20
1) 관련 제도의 고찰	20
2) 관련 계획의 고찰	21
제3장. 광역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분석	25
1.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26
2.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34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43
4.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51

5. 타 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시사점	58
제4장. 충청남도 경관행정현황 분석	62
1.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자원 현황	62
1) 시·군의 경관자원 및 유형	62
2) 지역의 대표경관	70
2. 경관기록화사업 기반 분석	74
1) 시·군 경관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74
2) 도의 제약점	81
2) 시·군의 제약점	82
4) SWOT 분석	84
제5장. 충남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87
1. 경관기록화사업 비전	87
1) 비전 및 목표	87
2) 추진 전략	88
2. 기획연구 추진 방안	89
1) 도와 시·군의 역할	89
2) 기록대상의 유형분류	92
3) 기록화 대상 선정	100
3. 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103
1) 기록(촬영)	103
2) 자료 분류 및 저장	106
3) 기록물의 활용	10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0
참고문헌	114

표 목 차

[표 1] 경관구성요소	11
[표 2] 국토교통부의 경관분류 체계	12
[표 3] 경관계획 중 자원 조사에 관한 내용	14
[표 4] 도 및 시·군, 특정경관계획 경관자원 조사 내용	15
[표 5] 도시경관기록사업 관련 선행연구	18
[표 6] 충청남도 경관자원분류 및 요소	22
[표 7] 경관기본 계획에 나타난 충청남도 주요 경관 기반	23
[표 8] 광역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현황	25
[표 9]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개요	27
[표 10] 울산광역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	28
[표 11] 울산광역시 경관분류체계	30
[표 12] 울산광역시 경관기록방법	31
[표 13] 울산광역시 경관기록(촬영)방법	31
[표 14]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사업 (5차) 개요	34
[표 15] 서울특별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	37
[표 16] 서울특별시 경관기록화사업의 프로세스	37
[표 17] 서울특별시 경관기록체계	38
[표 18] 서울특별시 경관변화 기록자료	40
[표 19] 서울특별시 촬영방법	41
[표 20] 서울특별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42
[표 21]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개요	43
[표 22] 인천광역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검토자료	46
[표 23] 인천광역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	46
[표 24] 인천광역시 기록대상의 유형구분	47
[표 25] 인천광역시 촬영방법	49

[표 26] 인천광역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50
[표 27]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	51
[표 28]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대상 코드화 내용	53
[표 29]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대상 선정 방향	53
[표 30] 대구광역시 경관기록 대상 촬영방법	54
[표 31] 대구광역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55
[표 32]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자료 분류체계	56
[표 33] 광역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비교분석	60
[표 34] 천안시 경관유형 분류 체계	63
[표 35] 공주시의 경관분류 체계	64
[표 36] 보령시의 경관자원 성격 관점	65
[표 37] 보령시 경관분류 체계	65
[표 38] 아산시 경관분류 체계	66
[표 39] 서산시의 경관분류 체계	67
[표 40] 논산시 경관분류 체계	67
[표 41] 서천군 경관자원 항목과 국토교통부 항목의 비교	68
[표 42] 충청남도 및 시·군 경관 유형의 특이 내용 및 모호성	69
[표 43] 충청남도 시·군 팔경 자원 및 유형	71
[표 44] 충청남도 지역별 경관 특징 및 대표 자원	73
[표 45] 응답자 재직기간	74
[표 46] 시·군 경관사업 유형	75
[표 47] 시·군 경관사업비 구성 비율	76
[표 48] 시·군 담당자가 생각하는 중요 경관사업	78
[표 49] 재직기간에 따른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 인식 차이	79
[표 50] 주체별 경관기록화사업 도입에 따른 문제점	84
[표 51] 충청남도 경관기록사업 도입에 따른 SWOT	86
[표 52] 성격 조합에 따른 경관자원의 유형 및 자원 예시	93
[표 53] 경관자원 성격코드에 따른 자원의 성격과 해당자원	94
[표 54] 지역의 팔경 자원 성격	95
[표 55] 지역의 팔경자원 성격 분석표	96

[표 56] 충청남도 경관자원 유형 제시(안)	95
[표 57] 지역에 따른 경관유형 항목 변경 예시(안)	99
[표 58] 경관대상 선정 기준항목 및 비중	100
[표 59] 기록대상 선정 절차	102
[표 60] 기록(촬영)방법	104
[표 61] 사진 기록물 저장 형태	107
[표 62] 기존의 기록물 활용 방안	108
[표 63] 기록물 활용 방안 제안	109
[표 64] 기획연구 및 기록화사업 소요 예산	11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9
[그림 2] 울산광역시 경관기록사업의 프로세스	28
[그림 3]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 메인 화면	33
[그림 4]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검색 화면	33
[그림 5] 서울특별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접근의 틀	36
[그림 6] 서울특별시 경관기록자료 분류 코드	39
[그림 7] 인천광역시 경관기록사업의 프로세스	45
[그림 8] 인천광역시 경관기록자료 코드부여	48
[그림 9] 대구광역시 경관기록 분류 체계	52
[그림 10]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홈페이지	56
[그림 11] 경관기록자료 확인창	57
[그림 12] 1900년대 초반의 대구사진	57
[그림 13] 대구 경관자원 52선 자료집	57
[그림 14] 경관사업 기간	76
[그림 15] 경관사업 예산	76
[그림 16] 경관사업 추진시 문제점	77
[그림 17] 기록사업의 주체	79
[그림 18] 경관기록 대상의 우선순위	80
[그림 19] 충청남도 경관기록화 사업 비전 및 목표	88
[그림 20] 충청남도 기록화 사업 진행과정	90
[그림 21] 시·군 기록화사업 진행과정	92
[그림 22] 자연, 인공, 문화 요소에 따른 경관자원 성격코드 체계	94
[그림 23] 경관기록물의 분류 체계	10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국토환경을 체계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한 경관법이 2007년 제정되어 시행된 후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보완되어 2013년 8월에 개정되어 이루어졌다(동법 시행령은 2014년 11월에 개정).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경관관리의 실행력 확보, 경관심의의 기능 강화에 관한 것으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의 구체화를 비롯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구비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관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주요 책무로 경관계획 수립을 들 수 있는데 도(道) 단위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충남의 15개 시·군 중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수립 대상이 아닌 고도(古都) 및 수려한 해양경관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관자원의 조사 및 기록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인 경관자원의 조사 및 기록화는 그 과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비롯하여 시대에 따른 사회상이 반영된 경관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생성된 자료는 사료 및 지역 정체성 보존의 의미와 경관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가치를 둘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록물은 해당 지역을 홍보하는 대표상징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자원의 조사 및 기록화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인 기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으로 경관법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경관법령을 비롯하여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제정·고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사업의 추진에 있어 방향과 지침을 주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베스트 경관자원 100선’과 같이 경관기록화사업과 유사하게 경관조사와 선정을 하여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경관기록화사업을 진행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기록화사업을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관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 사업이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기록구축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단편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관자료 구축이라는 사업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¹⁾.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관조사와 기록은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기록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에서 있어 일관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유형분류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아 원활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관기록사업을 살펴보면 경관기록이 경관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던 시기에 경관법 체계 내에서 지역의 경관자원 소개나 사료(史料) 구축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관사업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1) 한국의 100대 명산, 농촌 어메니티 100선, 국립공원 자연경관 100경 등이 중앙부처 경관자원 조사로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지역의 경관현황을 조사·분석하는데서 수반되는 부작용을 들 수 있다²⁾. 경관계획에 담겨져야 하는 많은 내용들이 경관 자원과 현황에 대한 충실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할애 받지 못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방대한 분량의 경관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³⁾.

충청남도에서 아직까지 경관기록화사업이 추진된 사례는 없으나 경관조례를 제정한 12곳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곳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2곳 시·군에서도 경관기록화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⁴⁾.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재 시·군에서 운용중인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관기록화사업을 경관사업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관조사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경관자원 조사 및 기록화 과정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조사 및 기록 방법으로는 경관관리 대상을 명확히 선정하고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성을 갖춘 실행단계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추진 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경관자원 분류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경관자원 조사 및 기록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경관계획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자원의 유형분류 체계를 모태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경관자원 특성에 따라 비중 및 항목체계를 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과 지역 특성이 균형을 이루어 연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동일한 행정 구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체계를 보여주어 총괄적인 기록화사업에 장

2) 경관계획 수립지침에는 11개의 대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구조의 설정, (4)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 (5)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6) 경관사업의 추진, (7)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9) 특정 경관 또는 요소의 관리, (10), 경관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구조의 설정,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 경관지구·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특정경관 또는 요소의 관리는 경관현황 분석이 기초적인 데이터를 구성할 수 밖에 없다.

4)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경관사업의 마지막 항목을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관기록화사업을 시책사업화 할 수 있다.

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관성을 갖춘 경관자원의 대분류 체계와 지역마다 특색을 주어 조정이 가능한 소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경관자원을 기록·구축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의 예시가 요구된다. 경관이라는 존재와 개념이 지역에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행정 및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생소한 실정에서 경관이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구축된 자료를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관자원 조사와 기록 과정 및 결과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며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춘 경관계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경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관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행정 및 경관 분야를 넘어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파급되는 인식확산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경관이라는 수단이 그 가치인식을 넓히고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경관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시간적 관계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로서 유기적이며 함의적인 자원이다. 경관은 그 형성과정과 함유한 가치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구전되어지며, 그림이나 문학작품, 음악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해 기록되어지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존재이다.

본 연구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경관자원을 체계적인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하여 경관형성과정과 가치를 기록하여 지역의 경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지역정체성 보존과 유지를 위한 사료로서의 경관기록과 충청남도의 경관계획·관리를 위한 경관현황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15개 시·군의 경관기록화사업에 활용되는 경관기록의 목적, 대상 선정의 기준, 대상 선정방법, 기록방법, 자료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 등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청남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다르므로 경관기록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도 및 시·군이 자체적으로 경관기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과 주체별 역할 분담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수준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록 구축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경관자원과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기록을 전제로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구축방안에 대한 기초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둘째, 구축된 경관기록 자료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도시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충남 경관기록화사업의 범위, 기록방법, 자료의 구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 및 시·군의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 및 정책 영역을 넘어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경관관리 대상을 적합하게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 조사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구축된 경관기록 자료를 다양한 수요층과 용

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관 관련 사업 주체인 지자체와 경관자원에 포함되는 장소 및 구성요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활용성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사업을 비롯하여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행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관련 법령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중앙부처의 경관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경관계획 및 경관기록화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조사를 위하여 공간범위를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결과가 2017년 이후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관기록화사업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간적 범위를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개념이 본격화되기 시작된 2007년에서 연구시점인 2016년 현재까지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제정되고 개정된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경관기본계획을 자료로 활용했으며, 특히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경관기록화사업 결과물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3) 내용적 범위

Ⅱ 관련 연구 및 사업검토

- 경관 및 경관기록사업 관련 연구, 정책보고서
- 국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검토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보고서

Ⅱ 개념 및 이론 고찰

- 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 경관기록화의 핵심이 되는 경관자원의 유형분류 체계

‖ 관련 법령 및 제도

- 중앙부처(국토교통부)의 관련법령 및 고시
- 충청남도 경관조례 및 각 기초지자체 경관조례

‖ 지자체의 관련 사업 고찰

- 경관 아카이브/홈페이지 구성/지역 대표 명소 선정 활용 사례

‖ 사업 추진 제한점 도출

- 충남 및 기초지자체의 사업추진 제한점

‖ 사업추진 방안

- 기획과제 추진 방안 도출/유형 분류체계의 개선
- 도와 시·군간의 협력체계
- 기록방안 및 결과물의 활용방안 도출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경관기록과 관련된 선행연구, 타 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분석, 충남 경관자원 및 관련법규 분석을 통한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경관기록 관련 선행연구 및 사업에 대한 문헌분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경관관련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여건 및 저해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방향 및 체계에 반영하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관기록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타 지자체 경관기록사업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 경관기록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사업 추진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충남의 15개 시·군이 보유한 경관자원을 비롯한 경관행정체계, 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충남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정립한다.

셋째, 추진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관기록 사업의 주체인 도 및 시·군 경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도 조사를 통해 지역에서의 경관의 이해와 파악 정도,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 기반 및 저해요인을 파악한다.

3) 연구의 흐름

서론 (1장)	<input type="checkbox"/> 연구배경 및 목적 <input type="checkbox"/> 연구범위 및 방법
이론 및 법제 고찰 (2장)	<input type="checkbox"/> 이론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경관유형과 경관자원 <input type="checkbox"/>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령 및 조례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제도 및 계획 고찰
광역지자체 경관기록사업 분석 (3장)	<input type="checkbox"/> 광역지자체 추진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경관기록사업 서울특별시 경관기록사업 인천광역시 경관기록사업 대구광역시 경관기록사업 <input type="checkbox"/> 타 지자체 경관기록사업 시사점
충남 경관행정 현황 분석 (4장)	<input type="checkbox"/> 충남 경관계획 및 자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의 경관자원 및 유형 지역의 대표경관 자원 <input type="checkbox"/> 경관기록화사업 기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경관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도 및 시·군 현황
충남 경관기록사업 추진 방안 (5장)	<input type="checkbox"/> 경관기록화사업 활성화 비전 <input type="checkbox"/> 기획연구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및 시·군의 역할 기록화대상 유형 및 선정 <input type="checkbox"/>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 및 분류, 저장 기록물 활용 방안
결론 및 정책 제언 (6장)	<input type="checkbox"/> 결론 및 요약 <input type="checkbox"/> 정책적 활용 및 향후 연구과제

[그림 1] 연구의 흐름

제2장 이론 및 법제 고찰

1. 경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경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경관(景觀)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각기 고유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다의성(多義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단언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Meinig(1979)은 경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 풍경, 환경, 장소’ 등을 설명하였으며, 황기원(1989)은 경관을 ‘한정된 토지, 경치, 조경, 지역’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관은 일정지역의 숲, 하천, 농지, 도로, 하천, 수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유한 외관을 말하며 이들 개개별 요소가 아닌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일체성이 있는 외관을 의미한다. 또한,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이는 풍경’을 뜻하나, 이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임승빈, 1991, p. 2)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의 정의인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택한다. 경관법에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 [표 1] 과 같이 자연적, 인공적, 복합적 요소가 포함되는

물적 요소와 인위적, 행태적 요소가 포함되는 비물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인공요소는 물적 요소에 해당하며, 주민의 생활상으로 이루어진 지역·환경적 특징은 비물적 요소로 인위적 요소와 행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경관을 이해하는 방식과 잠재적인 경관기록 대상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다.

[표 1] 경관구성요소

대분류	소분류	항 목
물적 요소	자연적 요소	· 기후, 지형, 지질, 토양, 수문
		· 식생, 야생동물 등
	인공적 요소	· 평면적 요소 : 도로, 획지(필지)
		· 입체적 요소 : 구조물, 건축물, 옥외장치물
	복합적 요소	· 오픈스페이스, 스카이라인
비물적 요소	인위적 요소	· 역사, 경제, 문화, 제도, 행정
	행태적 요소	· 사람, 자동차의 행태 등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p. 11)

2) 경관유형과 경관자원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경관자원으로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여 경관자원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경관유형은 이와 같이 경관자원이 존재하는 장소와 시점을 비롯하여 측정되는 가치에 따라 동일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자원과 유형의 분류 체계는 경관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관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5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에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인 주요 경관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⁵⁾.

국토교통부의 경관자원 분류체계는 자연경관자원·산림경관자원·농산어촌경관자원·시가지경관자원·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역사문화경관자원·지역상징경관자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경관자원의 대상에는 긍정적·기회적 요인뿐 아니라 부정적·제약적인 요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와 지역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인 경관자원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경관자원 유형과 그에 따른 항목은 다음 [표 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관기록 및 경관자원 조사를 위한 경관대상의 유형과 선정은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자원 유형을 토대로 하여 지역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연 환경 등 보유한 경관자원, 추구하는 목적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경관분류 유형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은 경관관리를 포함한 기록화사업의 일관성을 제약시켜 기록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환경 구조와 지역민의 삶의 모습 기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관자원의 분류체계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이 담길 수 있는 균형을 갖춘 분류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표 2] 국토교통부의 경관분류 체계

유형	자연 경관자원	산림 경관자원	농산어촌 경관자원	시가지 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역사문화 경관자원
항목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보전대상 산림 등	·경작지 ·농업시설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건물/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도로 ·철도	·성곽 ·서원 ·전통사찰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5) 해당 도의 경관특성을 나타내거나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중에서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며,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1) 경관계획과 경관기록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경관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5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된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 원칙 중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관기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경관자원의 특성분석 또한 경관기록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보아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선행된 경관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경관계획 수립 내용을 들 수 있다. 경관계획에서 주요 경관요소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경관자원 조사가 필요하므로 경관기록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경관기록사업이 경관사업으로 진행된다면 경관계획 안에 기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한 경관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관요소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넓게는 경관기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경관계획 중 자원 조사에 관한 내용

구 분	내 용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② 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분석의 종합 등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등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경관권역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경관축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경관거점의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과 경관조사

「경관계획수립지침」 중 경관현황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와 시·군에서 수립할 경관계획의 내용을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시 필요하거나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특정경관계획 수립 지침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침 상에는 경관현황 및 자원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수행하는 경관현황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관특성이 뚜렷하거나 지역의 경관자원 중에서 자원의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는 한편,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유형과 각 유형별 경관자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각기 제시되고 있는 조사 내용은 동일하나 시·군의 조사 대상에 있어 상위 지자체에서 조사한 경관자원이 있는 경우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경관자원조사에서는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로 경관자원의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표 4] 도 및 시·군, 특정경관계획 경관자원 조사 내용

도 및 시·군 경관계획 경관자원 조사	
조사대상	해당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시·군 자원 중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자원을 조사하며, 자원 및 분포를 종합적으로 조사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으로 구분.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 준용하며 긍정적·기회적 자원 외에 부정적·제약적 자원 및 비물질적 경관자원 포함
조사범위	경관자원이 관할구역 밖으로 연결 또는 인접한 경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거나, 경계 밖 일정범위를 정하여 조사
조사방법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현황사진 포함.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물의 활용 가능 조사결과는 기본구상-기본계획-부문별계획-실행계획 등과 연계. 관할 구역 내 경관자원 중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서 중요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 실행계획에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우수경관자원 대상 : 한옥, 근대산업유산, 역사·문화·경관적 기념물, 수목, 산림, 길, 염전, 농경지 등
특정경관계획 경관자원 조사	
유형별 경관자원 조사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영향도 특정경관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경관유형이나 요소와 관련된 자원을 중심으로 조사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 준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
경관자원 조사 종합	특정경관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장 중심으로 조사,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다/분포도는 축척을 사용하며 필요시 구역별로 자원분포도와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해당 특정경관의 기본구상-경관 수립시 특정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대상을 설정하는데 반영하거나 설계지침에 연계

경관자원의 조사결과는 경관기본구상-경관기본계획-중점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실행계획 등과 연계되어 작용되며, 관리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관할 구역 내 우수경관 창출이 가능한 중요경관자원을 보존자원, 관리자원 및 형성자원으로 구분·지정하여 실행계획 등에서 보존·활용을 촉진시키는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이어지게 한다.

2.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경관자원의 조사 및 기록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경관법이 제정되고 경관기록화사업이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최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그 이전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경관기록화 연구는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관기록화사업에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이루어지거나 기록사업에 포함되어 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가 기록사업에 포함되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사업 진행을 염두에 두어 기록대상의 선정, 촬영(기록)방법, 자료 활용 등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제시되고 있다.

경관기록화사업과 관련된 연구의 범위 설정은 경관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경관기록 대상을 선정하고 기록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경관 대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행연구의 범주는 좁아지거나 확장될 수 있다. 협의적으로는 기록화에 초점을 맞춘 건축·도시 분야의 아카이브 관련 연구에서부터 광의적으로는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의 범위는 경관기록화사업이 「경관법」에 근거해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록사업으로 논의에 집중하며 활용 목적에 맞추어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었던 경관기록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연구 성격의 기획 연구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광역지자체 경관기록을 위한 연구의 효시로 김기호(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차 서울모습 사진 기록화사업』을 위한 연구로서 1995~1996년 시행된 1차 서울모습 사진 기록화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도시경관기록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수립된 서울시 경관관련 계획들에서 제시되었던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경관기록의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여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관자원을 도시구조, 도시진화, 도시생활로 기록대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시차에 따른 경관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자료 이용의 편의성 위한 분류체계와 구체적인 촬영방법을 제시하였다.

최영은(2009)은 경관기록화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적용될 경관기록화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으로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비롯하여 경관기록화사업의 범위, 기록 방법, 자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경관 계획과 연계한 경관기록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김용하 외(2010)의 연구는 기획연구 자체가 전체 기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례로 『인천광역시 1차 경관기록화사업 보고서』에서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방법론 연구, 실행계획, 촬영 및 기록, 전시, 성과품 제작 등 기록화사업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경관 계획이 반영된 기록대상의 선정기준, 유형구분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변일용(2012)은 경관기록화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울산광역시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수립된 울산시 경관기본계획에 제시된 권역별 경관거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한편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록대상을 새롭게 선정하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록대상의 기준, 체계분류,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시 경관기록화사업이 기획연구, 촬영, DB 구축,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개최, 기록보고서 발간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서울특별시 5차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연구』(서울특별시, 2015)는 1~4차 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도시경관기록화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과는 달리 서울시만의 『표준기록경관』을 선정하여 경관관리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희수(2014)는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경관기록화사업을 분석하고 사진중심, 도시행정 관점의 기록사업에서 보여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수행 방식을 제안하였다.

각 광역시 별 도시경관기록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제시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 도시경관기록사업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주요 내용 및 결과
김기호 2000	서울모습 사진담기를 위한 기획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구조, 도시진화, 도시생활 촬영을 위한 경관기록대상 선정 · 1차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변화의 양상과 예상되는 지점 선정 · 서울시민 대상 경관 인지 설문조사 실시
최영은 2009	대구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자료 구축 및 정책자료 활용, 도시마케팅 자료 활용으로서의 사업 추진 제안 · 기록화대상 선정방향, 기록화 방법 제안 · 경관기록자료 활용방안 제시
김용하 외 2010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기획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기록대상의 선정기준과 프로세스를 제시 · 경관계획 상의 경관자원 및 경관관리체계를 반영한 기록대상의 선정 방안 제시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경관기록 분류체계의 활용 · 경관기록자료의 코드화 방안 제시
변일용 2012	도시를 기록한다-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한 경관기록 대상지 선정 방향 제시 · 도시경관기록화 지점의 활용방안 제시
문희수 2014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의 사진기록물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을 통한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의 의미 고찰 · 인천시와 대전시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분석 · 민간영역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 경관기록 제안
울산발전 연구원 2015	울산광역시 도시 경관 기록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 1차 경관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진행 · 기획연구▷기록체계 구축▷촬영▷DB구축▷홈페이지 제작▷전시▷보고서 작성, 전체 사업 프로세스 제시 · 경관계획상의 유형과 주요 지점을 활용한 기록대상 선정 접근방식 제시
서울특별시 2015	소통과 어울림. 5년마다 기록되는 서울경관, 그 다섯 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차 경관기록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기록대상을 도시풍경, 시민과 삶, 도시변화로 구분 · 1~4차 사업에서 기록된 연속기록경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기획선정경관, 경관계획으로 관리되는 조망점, 조망대상의 관리대상경관을 통합하여 표준기록 경관 선정, 접근방식 제시

2) 선행연구의 시사점

타 지자체의 경관기록화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경관기록화사업은 광역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역도나 기초지자체 차원의 연구대상이나 사업 진행은 서울시 마포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역시 차원의 연구와 사업에서는 도시지역 중심, 시가지경관 중심의 경관기록에 초점을 맞춘 자원의 유형 구분이나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①경관기록 대상 선정의 중요성, ②연속 사업을 위한 연계성 확보, ③지자체 성격에 따른 경관자원의 유형분류, ④경관기록화와 경관계획의 연계성, ⑤표준기록경관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광역시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어 경관 자원 유형분류와 선정, 기록 방식에 있어 일정한 정형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으므로 관할 구나 군의 기록화사업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광역도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이면서도 지형적, 문화적, 인문적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시·군의 개별성을 담는 한편 도차원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시·군에서 수행한 개별 경관기록화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또 다른 대상유형을 선정하여 재분류하는 2차 기록 및 선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각 시·군의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 수단이 다르며, 기록 대상 자원의 위계 또한 여러 단계의 자원이 망라되는 시·군과 달리 도차원의 기록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는 통합적인 기록의 집대성과 경관기록 유지관리체계의 제시가 요구되며 기존 사업 및 연구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과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반복되어 다루어지면서 해결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 도시지역 중심의 경관기록화사업 체계를 벗어나 광역도를 형성하고 있는 비도시지역, 즉 농어촌지역을 망라하는 경관기록화사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조례 고찰

1) 관련 제도의 고찰

경관기록화사업이 이미 수행되어진 5개 광역지자체(대전광역시 포함)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한 명시가 없었음에도 경관법령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이 작용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경관기록화 사업이 경관사업의 내용으로 명시되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정해질 때 비로소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관기록화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및 각 기초지자체의 경관조례를 살펴보고 경관기록화를 추진할 근거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중앙부처 관련 법령 및 규칙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하고 운용하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동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된 경관조사 조항을 들 수 있다.

수립지침에는 경관계획을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관계획과 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 및 시·군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자원 중에서 중요도, 가치 등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조사하며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관련 계획의 고찰

충청남도 경관 조례(제3955호, 2015. 2. 23. 일부 개정)에 의하면 경관기록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나, 간접적인 근거로서 제2조 경관 계획 수립의 제안 조항에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와 ‘7. 현황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경관기록화사업의 근거로 확대해석 할 수 있으며, 제5조 경관사업의 대상 조항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여 시책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충청남도 내 시·군의 경관조례에 경관사업으로 경관기록화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관기록화사업이 수행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경관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청남도 조례에서도 경관사업의 목록에 경관기록화사업이 명시되는 것이 요구된다.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한 곳이 아직까지 없는 현실에서 경관계획 상에 나타난 경관자원조사의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관 특징과 유형을 비롯하여 대표자원의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시·군의 경관자원의 면밀한 조사와 유형분류 체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관 자원 구성상의 특징을 파악을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체계를 갖춘 사업 방향 제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2007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경관법의 지역 자율성 확보와 지역 특화를 위해 2009년 12월 「충청남도 경관조례」가 제정되었고(이후 4차례 개정을 거침), 경관 조례의 핵심인 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따라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운용하기 위해 2013년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은 도에 속한 15개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경관계획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인 경관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관자원 분류체계는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지침] 을 근간으로 하여 전체 경관자원의 유형을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으로 양분하고 있다. 다른 분류체계와 다른 점은 역사·문화경관자원을 인공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인공자원을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관자원 분류체계에 따라 광역관점의 유형별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아래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6] 충청남도 경관자원분류 및 요소

유 형	자연		인공					
	녹지 경관	수변 경관	농산어 촌경관	시가지 경관	철도 및 도로경관	산업단지 경관	역사문화 경관	구성요소별 경관
항 목	·산악	·하천 ·호수 ·저수지 ·해안	·전 ·답 ·생산 녹지	·주거 ·상업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철도	·산업단지	·여가관광 ·역사문화	·건축물 ·오픈페이스 ·옥외광고물
중점관리구역	칠갑산 도립공 원일대	태안해안 국립공원 일대	외암민속 마을 칠갑산 산꽃마을	서해안 산업단지 일대			공주시 금강변 일대 부여군 금강변 일대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자료 : 충청남도, 2013, p.30)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중 광역차원의 기본 구상은 15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환경적, 경관적 특성과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과 같이 5대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권역 구분과 함께 경관자원의 특성이 축(선)의 형태이거나 성격을 갖는 해안, 하천, 녹지, 도로를 선정하여 ‘해안경관축’, ‘하천경관축’, ‘녹지경관축’, ‘도로경관축’과 같이 4대 경관축을 설정하였다. 경관자원이 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역사문화재, 관광지, 문화시설, 산업단지, 항·포구, 공공시설, 주요도로를 선정하여 ‘역사문화관광거점’, ‘산업단지거점’, ‘진입거점’, ‘도시거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청남도 경관권역의 기본 구상을 나타내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은 아래

[표 7]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7] 경관기본 계획에 나타난 충청남도 주요 경관 기반

5대 경관권역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보령, 태안, 서천	홍성, 예산, 청양	공주, 부여	계룡, 논산,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단지경관 • 항구·산업시설경관 • 도로경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보전지역경관 • 해안/경관도로 형성 • 주변 상업시설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청/미래경관 • 주변지 관리/개선 • 해안·산단·역사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보존·연계 • 주변지·도로 정비 • 관광자원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유역 정비 • 녹지축 연계·조망권 • 근대자원보존·관광자원

4대 경관거점		4대 경관거점	
해안경관축 서해안 생태해양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해안경관 관리개선 • 조망축 확보·상징이미지 연출 • 생태·관광자원연결축 형성 	역사문화관광거점 지역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계획 • 주변 건축물·도로·시설물 관리 • 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성
하천경관축 금강문화 하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담수지·호수 보존관리 • 하천에서 조망되는 경관연출 • 하천 문화공간·친수공간 	산업단지거점 미래지형적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대상 산단건축물 경관관리 • 연계·진입도로 상징성 강화 • 주변 시설물·경계부 경관관리
녹지경관축 친환경 조망녹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자원보전·네트워크 조성 • 녹지단절구간 복원·보전계획 • 주변 건축물·옥외광고물 관리 	진입거점 도시 상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진입·교차부 상징성 강화 • 통경축 확보/건축물·시설물 관리 • 다양한 볼거리 제공 문화거점
도로경관축 충남 상징연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부지와 자연경관 단절 해소 • 폐선부지 경관관리 및 개선 • 도로로 인한 경관단절 해소 • 경관도로·관광도로 정비개선 	도시거점 지역 이미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신도시/개발도시 경관관리계획 • 신도시 이질감 최소화 및 조화 • 경계부 및 중심부 경관형성

(2) 시·군 경관조례

경관조례가 제정된 12곳 지방자치단체 중 10곳(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례 내용은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조례제정 방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조례 내용과 달리 계룡시의 경우 경관기록화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주기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어⁶⁾ 타 시·군에서 기록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범례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제도로써 도입되지 않은 시·군에도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조례 명시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6) 계룡시 경관조례에는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 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 및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3장 광역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기록화사업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시에서 도시경관기록사업 형태로 시행되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서울특별시는 1995년에 『1차 서울모습 사진 기록화사업』을 추진한 이래 5년마다 경관기록사업을 연속하여 시행하여 현재 5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중 가장 최근인 2015년에 추진되었다.

[표 8] 광역지자체 경관기록사업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추진 경위	'95년~현재 5차 (5년 주기 시행)	2008년	2008년	2010년	2015년
근거	시책사업 ▶ 조례	시책사업	경관조례	경관조례	경관조례
목적	도시관리 경관기록 자료활용	경관관리 경관기록	경관관리 경관기록	경관관리 경관기록	경관관리 기초자료 정체성 유지
사업비	2~3억	2억	3억	3억	2.5억
수행	서울시립대학교	부산건축문 화재조직위	인천연구원	충남대학교	울산연구원
주관부서	디자인총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과	-

(자료 : 최영은, 2009, p.11의 자료 보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수행하게 된 근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경관사업 대상으로 기록화사업이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시책사업에 포함되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1) 사업개요 및 방향

울산광역시는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등 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광역시이다. 울산광역시는 도시경관조례 제7조 경관사업 대상에 경관기록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5개 시·군 모두 경관조례상에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이 경관사업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경관관리와 경관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과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광역지자체가 전체 시·군을 총괄하여 2015년에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기본방향 항목으로는 기록물 선정 기준, 기록 대상과 기록 위치의 명기, 사후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3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①경관기록화사업을 위한 연구 및 실행계획, ②경관사진 촬영 및 기록, 기록자료 분류 및 데이터화, ③스토리텔링 활용과 화보집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21,778매의 경관사진이 구축되었으며 보고서를 비롯하여 화보집이 발간되었고,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도시경관기록 아카이브를 운영 중이다.

[표 9]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관리 및 경관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의 변화상을 기록하여 도시의 역사자원 계승 - 대규모 개발계획 및 도시경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민 및 관광객의 흥미유발로 관광 및 시정 홍보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도시경관조례 7조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범위 : 2014. 4. ~ 2015. 6. + 과거 자료사진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전 지역 · 내용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진 기록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실행계획 2) 도시경관사진 촬영 및 기록 3) 기록사진의 분류 및 디지털데이터화 4) 도시경관 스토리텔링 활용 5) 도시경관 기록 화보집 제작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상 중요한 장소 및 객관성 있는 대상을 정리 ·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시의 모습을 기록 · 도시의 변화상 기록 (생성, 성장, 소멸 등) · 지속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 기록 · 기록물의 정리,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울산경관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자료 : 울산광역시, 2015, pp.7-8 및 울산광역시 도시경관 아카이브 자료 토대로 작성)

2) 사업 진행 프로세스

울산광역시 경관기록화사업의 진행은 [그림 2] 에서 같이 기획연구 ▶ 대상 촬영 ▶ 기록물 분류 ▶ DB 구축 ▶ 홍보물 발간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 단계인 기획연구 단계에서는 기록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대상 분류와 기록대상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기록대상 분류 단계에서는 앞서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조망점, 랜드마크, 경관축 및 조망대상 등 주요 기록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관련 보고서 및 문헌, 언론 기사 등 다른 자료를 통하여 새로운 기록대상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림 2] 울산광역시 경관기록사업의 프로세스

(자료 : 울산광역시도시경관아카이브 <http://www.ulsanarchive.re.kr>)

기록대상에서는 경관기록 대상을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문화자원, 축제·생활경관, 변화예상 장소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에 따른 경관기록 대상의 선정에는 [표 10]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경관 관련 계획보고서’, ‘역사문화 관련 문헌’, ‘언론 보도내용’, ‘인터넷’, ‘개발사업’, ‘수상작품’ 등 6가지의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해 경관기록 후보대상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기록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10] 울산광역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

구분	경관관련보고서	문헌	언론	인터넷	개발사업	수상작품
자연경관	○	○		○		○
인공경관	○		○		○	○
역사문화자원	○	○	○	○		
축제, 생활경관		○	○	○		○
변화예상 장소	○		○		○	

(자료 : 울산광역시, 2015, p.15)

선정된 기록 대상은 기록화의 핵심 과정인 촬영을 통해 기록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일반촬영, 항공촬영, 해상촬영, 동영상촬영 등의 촬영방법이 활용되었다. 촬영과정을 마치고 생성된 자료는 기록사진 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사진

DB로 기록되어지며, 마지막으로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도시경관 홈페이지 제작, 기록사진 화보집 등이 발간되었다.

3) 기록대상 체계

울산광역시의 경관기록 대상은 대분류-중분류-세분류-세세분류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대분류 시점에 따른 구분으로 ‘과거’, ‘현재’, ‘미래’ 및 ‘울산시민’ 항목을 포함하여 4개로 구분되고 있으며, 중분류는 대분류의 ‘현재’ 항목에 경관계획상의 경관유형 분류 항목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대분류 중 ‘과거’ 항목은 역사적 기록이란 중분류 1개로 별도의 세분류 없이 과거 기록물들이 세세분류로 구분되었다. 대분류 ‘현재’ 항목은 경관계획상의 경관유형 분류 체계인 9개의 중분류로 구분되었고, 각각 중분류 항목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세분류로 구분되었다.

아직까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개발예정지는 대분류 단계에서 ‘미래’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개발 전과 개발 후의 경관 변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분류 ‘울산시민’ 항목은 사람, 스포츠, 관광지라는 중분류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인 경관기록 유형 분류체계는 다음 [표 11] 과 같다.

[표 11] 울산광역시 경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경관코드)
과거	역사적 기록(PH)	
현재	자연경관	산(NM), 하천(NR), 호수/저수지(NL), 해안(NS)
	농산어촌경관	농촌(CF), 어촌(항,포구)(CS), 산촌(SM)
	시가지역경관	주거지/단독(UH), 주거지/공동주택(UH), 상업지(UM), 업무지역(UB)
	도시기반시설경관	도로(IR), 관문(IG), 교량(IB), 공원(IP), 철도(IS), 항공(IA), 항만(IH), 기타시설(IE)
	역사문화경관	문화재(HH)
	지역상징경관	랜드마크(LL), 12경(LU)
	산업지역경관	국가산업단지(PN), 일반산업단지(PG), 농공단지(PA), 기타공업시설(PE)
	건축물	공공시설(AP), 교육시설(AE), 문화시설(AC), 체육시설(AP), 기타시설(AA), 조망시설(LP)
	울산의 다양한 경관 (LE)	
미래	개발예정지	신개발지(FN), 재개발, 재건축(FO)
울산 시민	사람	시장(PM), 일상(PD, 축제(PF)
	스포츠(PS)	
	관광지(PT)	

(자료 : 울산광역시, 2015, p.17의 표 요약)

4) 기록방법

기록방법인 촬영단계에 있어 경관기록대상의 규모나 선적 또는 면적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촬영기법 및 방법의 활용을 다음 [표 12]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기록대상의 촬영은 정지 상태에서 촬영하는 스틸 사진방식의 일반적인 촬영방법이며, 기록대상의 선적 또는 면적형태에 따라 촬영범위와 각이 넓어지는 항공촬영이나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촬영 및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촬영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촬영은 과거 헬리콥터 및 RC헬기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드론 활용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상지와의 이격거리, 촬영시간, 촬영시간, 촬영장비, 촬영방식별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12] 울산광역시 경관기록방법

기록대상	방식	촬영기법	촬영기법/도구
대부분 기록대상	일반촬영	스냅사진	조망점에서 정지상태
면적경관(지역, 규모경관)	항공촬영	스냅사진/동영상	드론 이용
선적경관(수변축)	해상촬영	스냅사진	드론 이용/선박 이용
선적경관(도로축)	이동촬영	스냅사진/동영상	차량 이용/드론 이용

(자료 : 울산광역시, 2015, p.30)

[표 13] 울산광역시 경관기록(촬영)방법

구분	방법
촬영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계절별 촬영 · 항공촬영은 양호한 경관형성 시기에 촬영
촬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 09~16시, 야간 : 일몰 후 3~4시간
촬영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경 : 50m 이내, 중경 : 50~300m, 원경 : 300m 이상
초점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mm(광각)를 기준으로 한 적응촬영
촬영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장비의 기종은 통일, GPS가 내장된 DSLR카메라
워킹뷰 (Walking View)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대상물을 기록 · 주요 도로 교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 · 지상에서 촬영/특정대상에 대해서는 건물 내에서 촬영 · 촬영은 135형카메라/풀프레임 카메라 기준 24mm를 기본 · 특정경관은 광각, 망원 등의 렌즈로 촬영 · GPS 기록
드론(Drone)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원경을 기록, 특정지점에서는 중경으로 촬영 ·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도록 다른 눈높이에서 촬영 · 주요 시설물에서 마을, 동, 권역 단위로 촬영 · 고도 50m, 100m, 200m, 400m 등 다양한 높이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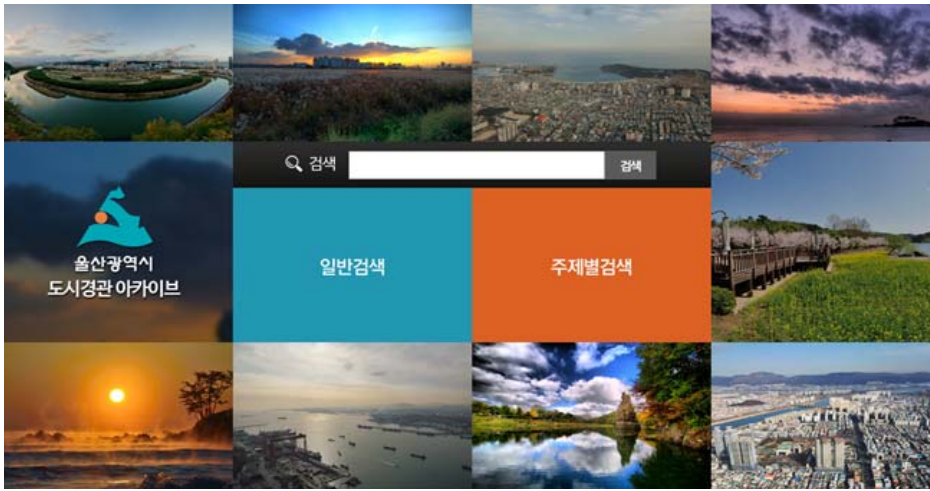
(자료 : 울산광역시, 2015, pp.29-33 내용 정리)

5) 기록물의 활용 방안

울산광역시시는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하여 생성된 사진기록물은 총 21,778점으로 「도시경관 기록 보고서」에 유형별 548점과 위치별 2,144점이 활용되었으며, 「울산시 도시경관 기록 화보집」에는 1,144점이 수록되었다. 생성된 경관기록물은 선별과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는데 선별된 사진에 대하여 촬영시점, 대상, 날짜, 제원 등이 표시된 촬영기록표를 작성하여 차후 기록물의 활용에 있어 색인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최종 구축된 경관자료는 스토리텔링 발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선별된 사진자료와 과거 사진을 비교하여 경관 변화 과정이나 시민 생활상, 지역문화에서의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경관을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발굴 과정을 거쳐 자료로서 자격을 구비한 기록물은 울산광역시의 경관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인식 확대를 위해 경관 전시회, 사진화보집 제작, 도시경관 웹페이지를 통해 홍보에 활용되었다. 경관 전시회를 구별 5개 장소에서 28일간 진행하는 한편, 선별된 도시경관 기록물로 사진화보집을 발간하여 홍보 효과와 자료 기록의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도시경관 웹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시민의 경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홍보자료로 공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도시경관기록 웹페이지는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의 소개와 지역별 검색, 주제별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을 통해 수록된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웹페이지의 이용방법은 지역별 검색으로 들어가서 각 구별 지역을 선택하면 경관 지점이 표시된 해당 구의 지도와 경관자원 축소판이 나타나고 해당 자원을 선택하면 된다. 주제별 검색은 울산시의 경관유형 분류가 나타나고 주제에 속한 자원을 찾으면 된다. 검색된 경관자원의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경관자원 명칭, 위치하는 구·군, 촬영일자, 사진설명이 팝업창으로 나타나고 해당 자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사진은 즉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거나 고해상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전달 받을 수 있다.



[그림 3]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 <http://www.ulsanarchive.re.kr>)



[그림 4]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검색 화면
(자료 : <http://www.ulsanarchive.re.kr>)

2.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경관기록 결과물을 토대로 2016년 7월 ‘사진으로 본 서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진으로 본 서울에는 1995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5년 주기로 촬영하여 수집된 사진자료 23,000 여점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표 14]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5차)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서울의 경관을 기록한 역사적 자료의 구축이 필요 · 체계적이고 통일된 경관자료를 생산하는 방식의 필요성 대두 · 현재 서울의 특징적인 시대상을 찾아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 · 서울의 경관모습을 공유하여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차 기록사업 : 서울 모습 사진기록화 사업 (시책사업) · 5차 기록사업 : 경관조례 9조(경관사업의 대상)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범위 : 2014. 6. ~ 2015. 9. / 과거자료사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일부 서울 외 지역 포함 · 내용적 범위 ·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1~4차 사업의 기록방법 및 내용 검토 · 경관기록 대상의 선정과 촬영 · 경관기록 사진의 정리 및 화보집 발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수행한 1-4차 사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계를 도모 - ‘표준기록경관’을 선정하여 향후 사업의 기록 기준 마련 ·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촬영기법 이용 - 객체적 측면의 도시경관과 주체적 측면의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기록 · 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변화를 수반하는 공공의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및 주요시책 조사 -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의 경관변화 및 관련사항을 조사 및 분석

(자료 : 서울특별시, 2015, pp.164-165)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1995년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은 경관기록화라는 개념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화보집 성격의 서울 모습 사진기록화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시행된 기록화사업에서는 사전에 기획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관변화 기록 관점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서울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식에 의해 기록물로 구축하고 공유하여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업 진행에 있어 연속성이 유지되는 기록구축을 위해 이전 사업과 연계성을 지닌 대상의 선정 방법 및 기록 방법과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경관기록 대상을 선정하여 촬영하며 수집된 사진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화보집을 발간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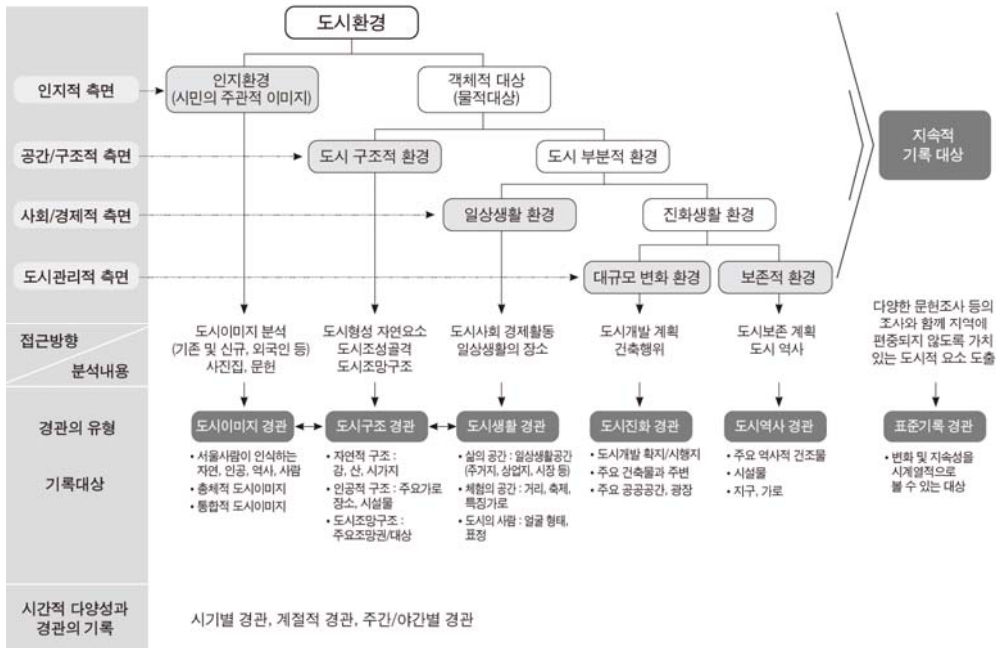
2) 사업 진행 프로세스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서울경관 기록」을 위해 사전에 이루어지는 기획연구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기록체계를 정립하여 기록화사업 추진과정에 활용되었다.

기획연구 단계에서는 서울시의 도시구조, 선행사업인 1~4차 기록화사업의 내용, 현재의 서울 이미지, 변화가 예상되는 기록대상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경관자원의 유형화와 분류체계를 정하는 한편 표준기록경관 선정하는 등 경관기록 대상에 대한 선정방식과 선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다음 [그림 5]와 같이 도시환경을 ‘인지적 측면’, ‘공간·구조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구분한 다음, 경관 유형은 ‘도시 이미지 경관’, ‘도시구조 경관’, ‘도시생활 경관’, ‘도시진화 경관’, ‘도시역사 경관’, ‘표준기록 경관’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관기록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신문기사 검색’, ‘인터넷 사진조사’, ‘문헌조사’ 등 4가지 유형의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기록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성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촬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형별 참고자료 및 내용은 아래 [표 15] 와 같다.



[그림 5] 서울특별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접근의 틀

(자료 : 서울특별시, 2015, p.166)

[표 15] 서울특별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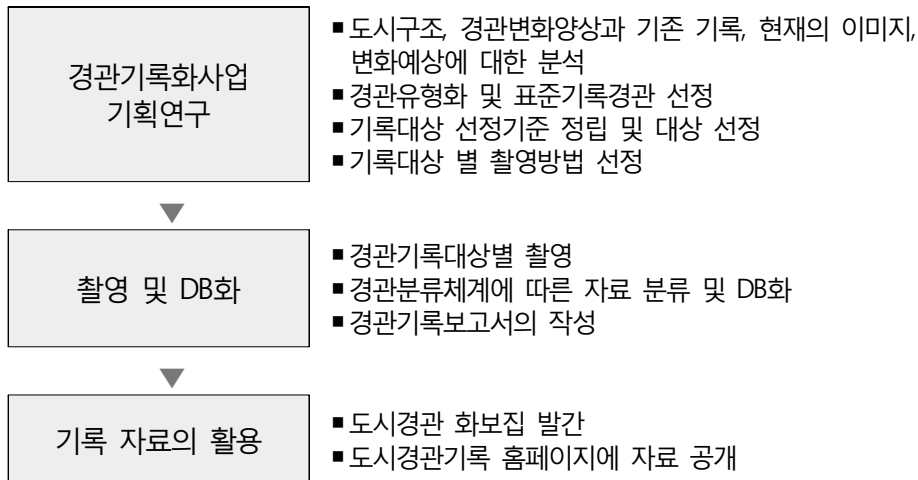
참고자료	기록 대상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도시의 경관관련 계획보고서 및 서울시 정기간행물 · 4차 기록사업에서 '변화예상지역'으로 선정된 대상 검토 · 자치구별 대표 지역경관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설문조사 : 구별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 배너/도시 및 건축 관련 학회 이메일 활용
신문기사 검색	· 최근 5년간 언론기사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 검색/노출빈도
인터넷 사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 서울경관, 서울역사, 서울이미지, 랜드마크, 서울구조, 서울생활

(자료 : 서울특별시, 2015, pp.170-171 내용 정리)

기획연구 단계에 이어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화 단계에서는 경관기록 대상별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생성된 사진자료는 기획연구에서 정한 경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경관자료의 활용단계에서는 도시경관화보집을 발간하고 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탑재하여 공개하고 있다.

[표 16] 서울특별시 경관기록사업의 프로세스



3) 기록대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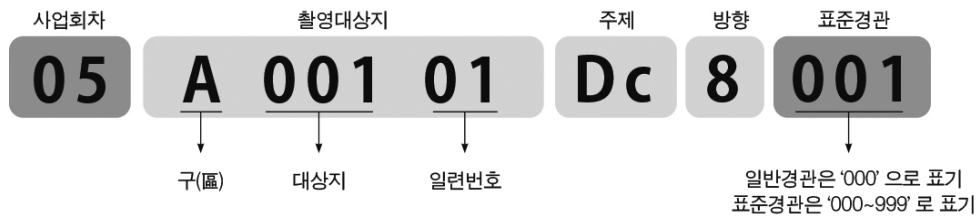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경관기록을 위한 분류 유형은 기획연구 단계에서는 ‘도시이미지 경관’을 비롯한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4가지 경관유형을 채택하였다.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대분류-중분류-세분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대분류에서는 ‘자연녹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수변경관’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중분류에서는 아래 [표 17] 과 같이 2 또는 4가지 자원을 경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서울특별시 경관기록 대상 중 특이한 항목으로 ‘컬렉션’이라는 주제의 항목을 들 수 있는데 주요 지역의 경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주제 구성은 20여 년의 경관기록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표 17] 서울특별시 경관기록체계

대분류	중분류
자연녹지경관	주요 산 , 구릉지, 공원녹지, 조망명소 (4개 유형)
역사문화경관	역사지구 및 역사구조물, 성곽, 주요 고궁, 근현대건축물 (4개 유형)
시가지경관	주거지, 상업지, 업무지, 특성가로 (4개 유형)
수변경관	한강, 지천 (2개 유형)

(자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그림 6] 서울특별시 경관기록자료 분류 코드

(자료 : 서울특별시, 2015, p.176)

경관기록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같은 경관기록 분류체계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컬렉션’ 항목에서는 서울의 도심지 변화, 역사풍경 변화, 주거지 변화, 표준기록경관 113지점, 주요 경관변화지역의 변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관자원은 위 [그림 6] 과 같이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촬영된 사진 기록물 마다 고유코드(code)를 부여하여 코드만으로도 해당 자료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사진 기록물에 부여되는 코드 정보는 경관기록사업 회차, 지역(구), 대상지(장소), 일련번호, 주제, 촬영방향, 표준경관 여부가 표시되고 있다.

[표 18] 서울특별시 경관변화 기록자료

분 류	주 요 내 용
서울의 도심지 변화	·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지 9개소의 경관변화를 확인
서울의 역사 풍경	·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의 고궁, 성곽 등 11개소의 경관변화를 확인
서울의 주거지 변화	· 시가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지 변화를 기록 ·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
표준기록경관 113지점	· 서울경관기록화사업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43개의 연속기록경관 · 설문조사를 통한 기획선정경관 · 서울시 경관계획으로 관리되는 관리대상경관을 통합하여 113개 지점의 표준기록경관을 선정
주요 경관변화지역	·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관기록 사진을 확인 · 성수대교 남단,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여의도공원,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태평로, 명동예술극장, 동대문운동장 DDP, 청계고가와 청계천복원

(자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4) 기록방법

기획연구의 핵심인 기록방법(촬영)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촬영시기를 계절에 따른 경관의 다양한 외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계절별 구분하여 촬영할 것과 시간별로 주간 경관과 야간경관을 구분하고 있으며, 주간에도 시간대별 경관의 다양성이 나타나도록 시간대별로 촬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촬영거리를 근경은 300m 이내, 중경 및 원경은 1km 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비해 넓게 설정하고 있다. 그밖에 촬영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표 19] 서울특별시 촬영방법

구분	방법
촬영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계절 별 촬영 · 계절별 경관의 다양성을 나타내도록 촬영
촬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 하루 중 시간에 따른 경관의 다양성이 나타나도록 함
촬영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경 촬영 : 300m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주요 건축물, 가로 혹은 그 주변을 여러 각도와 위치에서 포착 · 중경·원경 촬영 : 1km 이상 떨어진 주요 하천이나 산이 도시의 전체적 경관과 어우러진 분위기를 포착하여 촬영 · 특정 조망지점에서 시가지의 총체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항공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에서 조망하여 촬영 · 주요지역의 도시형태와 도시공간의 분포양상을 포착하고 변화된 정도와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

(자료 : 서울특별시, 2015, pp.172 내용 정리)

5) 기록물의 활용 방안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해 생성된 경관 기록물은 유형별로 체계화 한 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활용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인 활용은 사진화보집 및 도시경관 웹페이지 제작으로 이루어진다.

사진화보집은 도시경관 홍보자료 및 기록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풍경’, ‘시민의 삶’, ‘도시변화’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하여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 「사진으로 본 서울」이라는 경관기록 웹페이지를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 내에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서울시의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자료가 함께 공개되고 있는데 경관기록 결과물을 단순한 지역 홍보자료로서

의 활용을 넘어 연구자료 성격으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경관기록 웹페이지는 컬렉션, 사진검색, 사진보관함 등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컬렉션에서는 서울의 주요 경관의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검색창에서는 사진의 주제(경관유형), 촬영시기(1995~2015), 지역(자치구), 기타(조망사진, 야경 등)별로 검색할 수 있는데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도 구성하였다.

검색된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 [표 20] 에서와 같이 해당 사진의 대상지명, 촬영장소, 촬영시기, 통합코드번호 등의 정보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진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고해상도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표 20] 서울특별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진화보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풍경, 시민과 삶, 도시변화의 3가지 주제로 화보집을 구성 · 도시경관 홍보자료와 기록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 	
도시경관 웹페이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기록되는 서울경관 디지털 사진을 공개 · 경관기록대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기획 	

(자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3.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1) 사업개요 및 방향

인천광역시는 2개 군과 8개 구 형태의 기초지자체로 이루어진 광역시이다.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도시경관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경관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2003년 당시부터, 조례 22조에 경관사업 항목에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록대상을 규정하였다.

[표 21]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록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인천의 도시경관을 기록하여 보관 · 인천의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자료로 구축 · 인천의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 구축 · 인천의 도시경관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도시경관조례 22조 (도시경관의 기록)⁷⁾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범위 : 2008. 10. 27 ~ 2010. 3. 26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지역 (2군, 8구) · 내용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록화사업의 방법론 연구, 기획연구 및 기획연구 및 세부실행계획 2) 사진촬영 및 기록의 정리 3) 인천의 경관분석 및 사진전시, 성과품 제작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상 중요한 장소 및 객관성 있는 대상을 선정 ·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시의 모습을 기록 · 도시의 변화상 기록 (생성, 성장, 소멸 등) · 향후 기록사업을 고려해 기록대상과 조망위치 기록 · 기록물의 정리,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동일한 관점과 시선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촬영자 교육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pp.1-2 정리)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2008~2010년에 걸쳐 경관기록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인천시의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변화하는 인천의 도시경관을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경관관리 및 역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구축과 도시경관의 홍보를 위하여 도시 브랜드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기록화사업의 방법론 연구, 기획연구 및 실행계획, 촬영 및 정리, 전시회 개최, 성과품제작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연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사업 진행 프로세스

인천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기록대상의 선정부터 촬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체 프로세스가 사업안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다. 기록대상을 ‘문헌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촬영, 분류, 코드화를 거쳐 생성된 기록자료로 경관기록집을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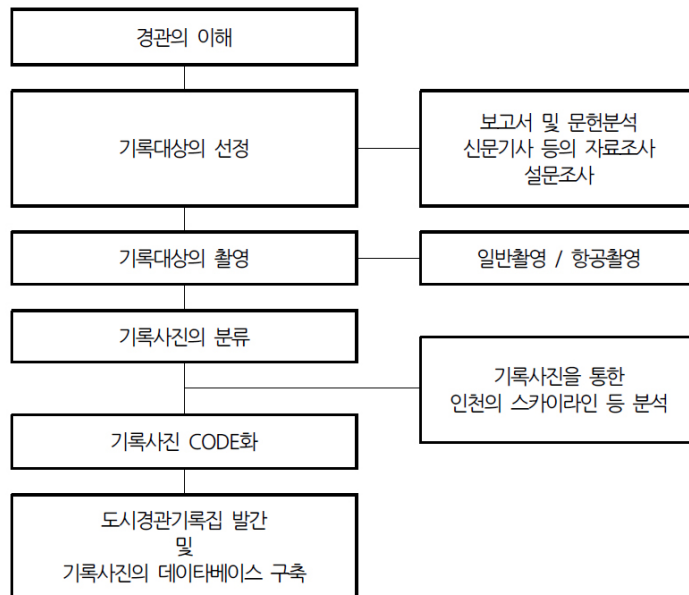
기록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1차적으로 ‘경관관련보고서’를 비롯한 ‘문헌’, ‘신문’, ‘인터넷’, ‘공공시책’ 등을 조사하여 기록대상 후보를 우선 선정하게 되는데 기록대상 후보는 크게 ‘인천을 대표하는 공간’, ‘이미 선정된 기록대상’, ‘인천의 대표적인 자연·인공적 경관’, ‘문화유산경관’, ‘변화가 예상되어 기록이 필요한 장소’로 구분하여 다양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관대상 후보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기록대상으로 선정된다.

인천광역시는 울산시나 서울시와 달리 경관기록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 내 ‘도시경관아카이브’에서 경관기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용방법은 경관기록화사업을 경관자원을 홍보하는 화보집 성격에 그치지 않고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록사진의 분류 후에 곧바로 유형화가

7)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정 경관기록대상을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다. 조례 22조 3항을 보면, 1. 「항만법」 등에 따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2.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인천의 스카이라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사업 안에 포함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7] 인천광역시 경관기록사업의 프로세스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p.2)

3) 기록대상 선정절차와 기준

기록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 검토는 [표 22] 와 같이 인천광역시 및 군·구에 서 수행한 ‘경관 관련보고서’, ‘관련 문헌’, ‘신문 및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 ‘공공 시책으로 이루어진 대상’, ‘엽서·사진공모전, 인천사진화보집, 우수건축물 수상 작, 축제 및 주요 행사’ 등의 자료를 조사·평가하여 선정하였다. 기록대상 선 정을 위한 상세한 자료 내용은 다음 [표 23] 과 같으며 6가지 항목의 자료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표 22] 인천광역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검토자료

구분	경관관련 보고서	문헌	신문 검색	인터넷 검색	공공 시책	기타 축제, 수상 작품
대표성 있는 공간	○	○	○	○		○
기 선정 기록대상	○					
대표적인 자연 인공 경관	○	○		○		○
문화유산 경관		○		○		
변화예상 장소			○		○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p.8)

[표 23] 인천광역시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

참고자료	기록 대상
경관관련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보고서의 조망점, 조망통제점, 랜드마크, 주요도로, 주요교차로, 주요경관지역과 경관요소 등을 조사 ·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 · 인천시시가지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 인천시 하천마스터플랜 ·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및 정비계획
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지형적 특징, 도시구조, 역사를 간직하는 길과 건축물 등을 조사 · 인천땅 '이만큼 알기', 인천의 길과 시장, 인천의 하천이야기, 인천 근대건축,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추억속의 동구이야기, 인천역사(인천 근대건축의 재발견), 우리나라의 갯벌 등
신문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도시개발, 공공디자인관련 사업 조사하여 기록대상 발굴 · 경인일보의 인천관련 기사 검색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과 군, 구 홈페이지에서 대표적 관광지, 문화유산, 행사 등을 조사 · 포털사이트에서 인천 이미지 조사
기타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의 공공기관 발행물 조사 · 엽서, 사진공모전, 인천사진화보집, 우수건축물 수상작, 축제 및 주요 행사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분야 보고서의 268개의 유형별 경관요소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조사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기록이 가능한 기록대상을 선정 · 기록대상의 적절한 기록시점, 방향, 거리 등을 조사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pp.4-7)

4) 기록대상 유형 구분

인천시 경관기록대상의 유형 구분은 위계별 분류체계가 아닌 별도의 카테고리 구분하여 항목에 따른 경관자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관대상 유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지침에 명시된 항목을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표 24] 인천광역시 기록대상의 유형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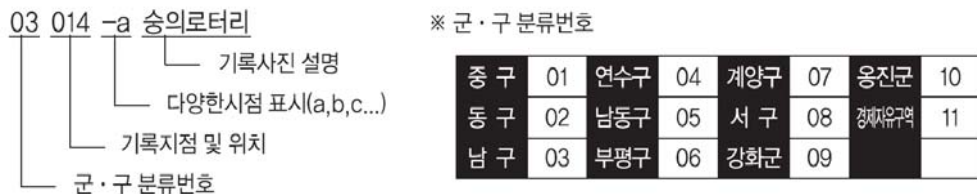
구분	내 용	
1. 군·구별 전경	· 군·구의 도시구조와 성격을 드러낸 모습을 항공촬영	
2. 예정개발사업	· 개발사업 등의 예정으로 주위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곳	
3. 경관축	· 인천도시기본계획상의 교통경관축(9개), 도심경관축(4개), 자연경관축(4개)의 경관을 기록	
4. 주요조망점	· 인천도시기본계획 상의 조망점에서 군·구의 도시구조를 기록 (16개)	
5. 일반조망점	· 수려한 경관, 특정 경관을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조망점 (45개)	
6. 조망통제점	· 시가지 경관계획 상의 조망통제점에서 경관을 기록 (47개)	
7. 랜드마크	· 인천도시기본계획 상의 랜드마크 · 대표적인 건축물, 조형물, 자연환경요소 13곳을 지정	
8. 경관유형	녹지경관	· 산, 공원
	수변경관	· 해안, 하천
	역사문화관광지경관	· 문화재 및 유적지, 유원지 및 관광지
	중심지경관	· 주요건물, 교차로, 역, 주요보행로, 우수건축물, 1구 1특화가로, 이색음식거리
	교통산업경관	· 도로, 터미널, 교량, 철도, 항만, 공업지역
	주거지경관	· 자연발생 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
	상업업무지경관	· 형성시기로 시가지를 구분
9. 중점관리지역	· 경관형성계획수립 및 경관관리수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지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경관을 기록 · 42개소의 중점경관관리지역	
10. 축제 및 행사	· 시, 군, 구의 대표적인 축제와 행사를 장소와 함께 기록	
11. 생활경관	·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기록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pp.9-38의 내용 요약)

기록대상 유형은 [표 24] 에서와 같이 기존 경관관련 보고서에서 제시된 체계에 따라 ‘군·구별 전경’과 ‘예정개발사업’, ‘일반조망점’, ‘축제 및 행사’, ‘생활경관’을 더하여 11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경관계획 상의 경관축, 주요 조망점, 일반 조망점, 조망통제점, 랜드마크, 경관유형, 경관중점관리지역, 축제 및 행사, 생활경관 등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다.

인천시 경관기록화사업에서도 기록사진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코드화 작업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8] 과 같이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촬영된 사진 기록물 마다 고유코드(code)를 부여하여 경관기록집에서는 군·구별로 분류하였으며 기록지점 및 위치, 시점, 설명 등이 표시되었다.

촬영된 기록물은 디지털 데이터화 후 기록집 제작, 전시회에 활용되었고 현재는 ‘인천도시경관아카이브’에서 공개 활용하고 있다.



[그림 8] 인천광역시 경관기록자료 코드부여

(자료 : 인천광역시, 2010, p.18)

5) 기록방법

기록방법에 대하여 촬영시기 및 빛에 의한 음영대가 강하지 않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촬영거리, 파노라마 및 135형 외에 4×5인치 대형카메라⁸⁾ 등 사진촬영 장비, 촬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5] 인천광역시 촬영방법

구분	방법	
촬영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계절 별 촬영 · 겨울촬영은 가로수 등에 가려진 건물 촬영 	
촬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에 의해 너무 깊은 그림자가지지 않게 하고 사물의 입체감이 잘 드러나는 시간대를 선정 · 한낮의 빛보다는 오전 7시부터의 시간과 오후 2시 이후의 해가 기울어진 시간이 촬영에 적합 	
촬영거리	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m 이내 - 기록대상 만을 촬영
	중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m~3km - 지상바닥에서 눈높이로 기록대상과 그 주변을 함께 포착
	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km 이상 - 주변의 높은 곳에서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촬영
촬영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즈의 효과에 의한 최적화 표현을 위해 다양한 기종 사용 · 35mm 형의 디지털 DSLR 카메라와 다양한 렌즈 · Linhof 6 x 12cm의 파노라마 카메라와 렌즈 · Fuji Professional GSW690Ⅲ의 광학형 파노라마 카메라 · Linhof Master Technika 4x5 inch의 건축용 대형카메라와 렌즈 	
촬영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S를 사용하여 촬영일자, 촬영위치 등을 명확히 기록 · 추후 경관기록화사업시 동일 장소에서의 촬영을 유도 	
원거리 촬영 (항공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중거리 경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전경을 기록 · 기상조건, 계절,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계가 멀리 보이는 맑은 날 촬영 	
수변경관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선이 운항되는 도서지역은 행정선을 이용한 촬영 ·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항루트에 따른 경관을 촬영 · 가능한 지형이 높은 곳에서의 촬영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pp.39-44 내용 정리)

- 8) 종래 필름카메라에서는 필름의 크기가 해상도와 비례했었다. 화상이 형성되는 프레임(필름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던 방식으로 중형카메라는 135형(24×36mm) 보다 큰 120형(폭이 60mm인 필름)을 말하며, 대형카메라는 4×5인치(102×127mm) 이상인 큰 형식의 필름을 말한다. 현재 렌즈의 해상도 향상과 고화소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으로 135형 디지털카메라로 대체되고 있다.

6) 기록물의 활용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해 생성된 경관 기록물은 유형별로 체계화 한 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경관기록집 제작과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전시회에 활용하였다.

경관 기록집은 「변화하는 인천의 도시모습」이란 제호로 발간되었는데 구축된 인천의 도시경관을 홍보하는 기능과 기록물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록집에는 인천시의 경관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군과 구별로 기록화한 내용을 담아 제작하였고 인천시 홈페이지에 화보집으로 탑재되어 있다.

도시경관 아카이브는 경관기록 자료를 선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생성물을 인천시 홈페이지 상에 도시경관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아카이브에는 총 867건의 사진자료가 구축되어 있는데 찾고자 하는 기록물은 검색창에 낱사를 입력하거나 제목, 담당자, 주제어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다. 해당 사진자료에는 기록물 코드와 제목이 표시된다.

구축물 사진기록물은 2009년 개최된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인천시의 옛 모습과 대비된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에 활용되었다.

[표 26] 인천광역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록집 구성	· 군·구별로 기록화한 자료집 발간. 인천시 현황 및 계획 소개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선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인천시 홈페이지에 도시경관 아카이브 구축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시 전시회 개최 · 옛 사진과 비교하여 변화상을 확인하는 사진 전시 등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2010 및 인천시 도시경관아카이브)

4.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

1) 사업개요 및 추진 방향

대구광역시는 2009년 ‘대구광역시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에 앞서 기획연구를 진행하여 경관기록화 사업범위, 기록화 방법, 기록 및 활용방향 등 사업방향과 방법의 사전 모색이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 경관기록화사업은 대구의 경관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마케팅을 전개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구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모습과 변화가 이루어질 지역에 대한 이미지, 도시공간에서 보여 지는 시민생활을 담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대구시의 경관기록화사업은 화보집 성격의 아카이브 구축으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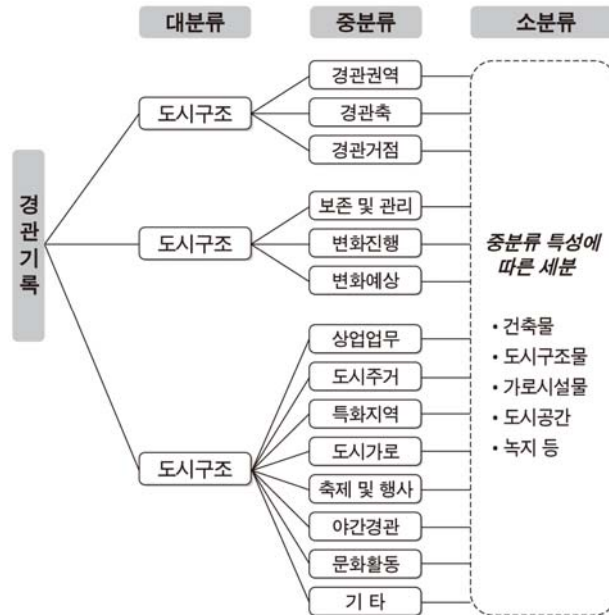
[표 27]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사업 추진 방향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경관자료 구축 · 경관관련 정책자료로 활용 · 도시마케팅 자료로 활용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범위 : 4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기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 내용적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구조 :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모습 2) 도시변화 : 변화가능 지역에 대한 이미지 3) 도시활동 :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시민생활

(자료 : 최영은, 2009의 내용 정리)

2) 기록대상 체계

대구광역시의 경관기록 대상의 유형은 대분류-중분류-세분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대분류에서는 ‘도시구조적 측면’, ‘도시변화적 측면’, ‘도시생활적 측면’ 항목으로 구분되며, 중분류에서는 경관계획상의 권역, 축, 거점을 도시구조의 중분류로 도시변화의 중분류는 보존 및 관리, 변화진행, 변화예상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생활은 다양한 중분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전체 기록 분류체계는 아래 [그림 9] 와 같다.



[그림 9] 대구광역시 경관기록 분류 체계

대구시 경관기록화 기획연구에서는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방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드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획연구에서 제시한 코드화 방안은 위치정보, 기록물의 주제, 연번, 세부기록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8]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8]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대상 코드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코드화 방안	위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지점과 조망대상의 위치 · 기록 전산화와 GIS 등 기존 전산자료와 연동성 고려 결정 · 행정구역과 지번 등을 활용한 기록 또는 지점의 좌표(경도와 위도)를 이용한 기록
	기록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구조, 도시변화, 도시생활과 같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코드를 기록 · 경관기록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
	연번	· 촬영대상에 대한 촬영순서
	세부기록	· 촬영지점, 촬영여건, 촬영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

경관기록 대상의 선정은 크게 ‘도시구조적 측면’, ‘도시변화적 측면’, ‘도시활동적 측면’과 시민의식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도시구조적 측면으로는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조망지점 및 조망관리 구역 등을 대상지로 보았으며, 도시변화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활동적 측면으로는 상업업무, 도시주거, 특화지역, 도시이벤트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대구 시민이 경관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선정에 반영되었다.

[표 29]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대상 선정 방향

구분	주요 내용
도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조망지점 및 조망관리구역 등 · 경관골격 : 점, 선, 면
도시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 도시외곽지 개발지역 등
도시활동	· 도시축제 등의 도시이벤트 및 특징적, 일상적 도시생활 공간
시민의식조사	· 대구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지

(자료 : 최영은, 2009, p.17 및 p.19의 내용 정리)

3) 기록 방법

기록대상지의 규모에 따라 설정되는데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관내용, 촬영거리, 포착유형 등을 제시하여 기록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촬영지점의 선정 및 여건 기록, 촬영방법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표 30] 대구광역시 경관기록 대상 촬영방법

구분	방법	
촬영시기	· 4계절 별 촬영	
촬영거리	근경	· 500m 정도/대상물이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거리
	중경	· 1km 정도/지구적 범위적 범위를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거리
	원경	· 시가지의 총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리
촬영방식	근경	· 근접촬영 · 지상바닥에서 눈높이 경관 촬영(아이레벨) · 주변의 건물 위에서 대상을 아래로 촬영(부각)
	중경	· 높은 곳에서 전체 지역을 부각으로 촬영 · 주변의 높은 곳에서 눈높이로 지역의 전체적인 윤곽촬영 · 대상지역을 주변과 연속적인 시각으로 촬영
	원경	· 항공촬영 · 높은 곳에서 눈높이로 도시전체적인 윤곽 포착 · 높은 곳에서 시가지 전체의 모습을 연속경관으로 촬영
촬영위치 및 기록	· 선정된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을 선정 (필요에 따른 가시권분석 이행) · 촬영지점에 대한 세부내용 기록 및 촬영번호 · 촬영상태 등에 대한 기록 (계절, 거리, 시간 등)	

(자료 : 최영은, 2009, pp.26-27 내용 정리)

4) 경관기록 활용 방향

기획연구에서는 생성된 경관기록 자료의 활용방법으로 직접적인 활용과 간접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활용방안으로는 인천시 경관관련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는 활동 외에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시 자료로 활용하며, 경관 시뮬레이션 작성 시 방향설정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간접적인 활용방안으로는 기록 자료의 축적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기록 대상지를 장소 명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표 31] 대구광역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경관자료 직접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자료 활용 방향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방향 · 인천시 현황 및 계획 소개 	
경관자료 간접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자료 축적 및 활용방안 제안 · 조망점(촬영지점)의 도시명소화 	
코드화 방안	위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지점과 조망대상의 위치 · 기록 전산화와 GIS 등 기존 전산자료와의 연동성을 고려 · 행정구역과 지번 등을 활용한 기록 또는 지점의 좌표(경도와 위도)를 이용한 기록
	기록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구조, 도시변화, 도시생활과 같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코드를 기록 · 경관기록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
	연번	· 촬영대상에 대한 촬영순서
	세부기록	· 촬영지점, 촬영여건, 촬영방법 등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자료 : 최영은, 2009, pp.27-29)

대구시 도시경관사업은 아카이브 구축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카이브에는 자연, 역사, 도시, 야경 등 4가지 테마를 설정하여 경관기록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구성된 ‘스페셜 뷰’에서는 경관 52선, 공모전 사진, 옛날 사진 등 화보집 개념의 경관사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소식지 등 도시디자인을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아카이브는 화보집 성격을 띠고 있어 많은 사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범용적인 경관기록 분류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관기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보다는 사진 제목, 해상도, 촬영위치 정도만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아카이브와 달리 1900년 대 초반 대구시 도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구경관자원 52선’은 경관기록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단순 화보집이라기보다는 기록적 접근이 이루어진 기록화보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록자료 분류체계

구분	주요 내용	
아 카 이 브	자연	·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139장의 사진 자료
	역사	· 고건축물, 근대건축물, 전통마을, 시장 등 185장의 사진 자료
	도시	· 현대건축물, 도시기반시설, 광장, 공원 등 115장의 사진 자료
	야경	· 주요 경관의 야경사진 48장
스 페 셜 뷰	경관 52선	· 대구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는 자연, 도시, 문화경관
	공모전 사진	· 2013년 10월에 경관사진 전국공모 후 자료집 발간
	옛날 사진	· 1900년대 초반의 대구 경관 사진

자료 : 대구시 도시경관 홈페이지



[그림 10] 대구광역시 도시경관 홈페이지



[그림 11] 경관기록자료 확인창



[그림 12] 1900년대 초반의 대구사진

대구 신천



[그림 13] 대구 경관자원 52선 자료집

5. 타 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시사점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 방식 및 지속성을 갖춘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사업 활용을 위하여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이 이루어진 4개 광역지자체인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관기록화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대부분 경관기록화사업이 중앙 법령 및 고시에 의한 근거 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경관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5차 사업부터는 경관조례에 의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사업 추진 주기 및 기간, 사업 추진 근거,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 여부, 기록대상 유형 분류 및 선정기준, 기록(촬영)방법 및 기록(디지털)방법, 생성된 기록물의 활용방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경관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5년 주기로 기록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2008년 처음 수행한 이후 8년이 경과되도록 연속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사업을 수행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초기 사업 시기인 2000년 이전에는 화보집 성격의 사진기록화 단계였으나 점차 경관의 범주에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사업의 성격이 전환되고 있어 이전 사업과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획연구의 수행 방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사업에서 기획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기획연구를 통해 기록대상의 선정, 기록 방법, 활용방안 등 핵심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추진 방식으로는 기록화사업 이전 단계에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식과 기록화사업에 포함하여 수행기간 초반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사업과 분리하여 진행할 경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른 관련 계획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업에 포함할 경우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근접할 수 있어 구체성 있고 활용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각 사업에서 기록대상의 선정에 활용된 자료로는 크게 ①경관 보고서 및 문헌 위주의 문헌자료, ②신문 및 인터넷에 소개된 매체 노출도, ③정책 사업이 이루어진 대상, ④경관 관련 수상 실적 및 선정, 활용이 빈번한 대상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관 자원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관계획상 제시된 경관유형이나 경관자원이 우선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도시이미지, 생활상, 관광 홍보 등 보완적인 자료와 요소들을 선정기준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촬영)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구체성 및 원경 등 거리의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지역 경관 자원의 특수성 및 기록화 사업의 착수가 구체화 된 시기에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구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촬영기종을 명시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활용을 어려워지도록 한다.

생성되어 기록화 된 자료의 활용방법에 있어서 기록집(화보집 발간), 도시경과 웹사이트 또는 아카이브구축, 전시회 개최로 요약되고 있다. 탑재된 기록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며 데이터로도 제공된다.

경관기록화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광역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활용방안을 고찰해 본 결과 충청남도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반 및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사업 추진근거는 조례 등에 명시하여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특히 도차원에서 시·군을 총괄하고 선도하는 통합적인 추진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추진근거를 토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한 시범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획과제의 수행과 시범 사업의 추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획과제를 통하여 도 전체와 개별 시·군에 통용되는 일관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갖춘 추진 방법과 경관 기록 대상 유형의 체계화, 대상 선정 시 판단 및 평가 기준이 단계별로 도출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환경에 작용될 수 있고 연속사업 추진 시 일관된 방안으로 자료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록 방법 및 저장형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하는데 경관기록집, 전시회, 홈페이지 또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보편적인 활용 방법 외에 시민이 참여하고 활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폭 넓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 33] 광역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비교분석

구분	울산	서울	인천	대구
사업주기	1회 (2014년)	5년 주기 (5회 실시)	1회 (2008년)	1회 (2013년)
사업기간	15개월	16개월	18개월	-
사업근거	경관조례 (경관사업)	1-4차 : 시책사업 5차 : 경관조례	경관조례 (경관사업)	시책사업
기획연구	○	○	○	- 9)
기록대상 선정자료	○	○	○	-
기록대상 분류체계	○ 시간/경관유형/시민	○ 경관계획 기반	○ 경관계획 기반	○ 자연/역사/도시/야경
기록방법	○	○	○	-
기록물 분류체계	-	○	○	-
디지털 데이터화	○	○	○	-
기록물 활용방법	전시회 화보집 제작	화보집 제작	전시회 화보집 제작	화보집 제작
별도 홈페이지 구축	○	(서울연구원 아카이브)	(인천시청 아카이브)	(대구시청 아카이브)

충청남도 및 각 기초지자체의 경관자원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전반적인 분류기준을 따르면서 각기 지역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축약하거나 확장되는 등 지역 특색을 갖춘 체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구성이 지역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반면, 본래 분류 체계가 갖추고 있는 성격 및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9) 대구시는 2009년 경관기록화 사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내용과는 별도로 기록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물질경관 자원을 자연경관 자원과 인공경관 자원으로 양분하는 구조에서 인공적인 요인이 가미된 생산자원에 속하는 농어촌자원을 자연경관 자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인공경관자원에 있어서는 시가지경관자원과 영역이 광범위한 도시기반시설자원으로 구분되면서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도(道)차원의 경관기록화사업은 물론 각 기초지자체의 기록화사업 진행에 혼선을 주며 일괄적인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결여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되는 경관자원의 분류 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관자원의 성격을 자연자원 또는 인공자원과 같이 두 영역으로 양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립적인 성격의 정도 및 다른 요소가 결합된 경관자원의 성격을 나타내는 복합성을 띤 경관 유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관자원의 구성 유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의 형태와 여기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유형이 상호 호환되면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가변성을 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충청남도 경관행정 현황 분석

1.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자원 현황

1) 시·군의 경관자원 및 유형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경관기록을 위한 경관대상의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경관자원 유형을 토대로 하여 지역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연 환경 및 보유 경관자원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관분류 체계 또한 일괄되지 못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본래 의도한 체계에서 벗어나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모습과 지역민의 생활상, 변화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류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이 담길 수 있는 가변성 있는 분류체계의 제시가 요구된다.

현재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지자체에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천안시를 비롯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외에 군 지역으로 해양도시인 서천군과 태안군, 역사도시인 부여군에서 고도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기본계획에 수록된 경관자원의 분류체계 및 주요한 경관자원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

천안시의 경관자원 유형은 2012년에 수립된 「천안시 경관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으며, 아래 [표 34]와 같이 자원이 위치한 장소와 성격에 따라 자연경관, 인문경관, 역사·문화경관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자연경관은 다시 산림, 하천, 저수지, 생태로 구분하였고 인문경관은 상업지역, 산업·농업지역, 공원, 교통, 지역·지구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역사·문화경관은 문화유산과 천안 12경으로 다시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4] 천안시 경관유형 분류 체계

구 분	자연경관			인문경관					역사·문화경관	
	산림	하천	저수지	상업지역	산업·농업지역	공원	교통	지역·지구	문화유산	천안 12경
자 원	성거산 태조산 흑성산 은석산	천안천 원성천 병천천 성환천	천호지 천홍저수지 용연저수지 업성저수지	천안시청 천안역 두정역 대학가	농업지역 산단 등 공업지역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고속철도 철도	경관지구 미관지구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도지정문화재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천안시의 경관자원 유형 분류방식은 국토교통부 분류방식을 따르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대상지가 아닌 대규모 단지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포함시키는 점도 다른 지역과 차별을 보인다. 반면, 자연경관 유형에 생태자연을 포함시키며 모든 공원을 일관되게 인문경관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자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나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문화경관 항목에서는 지정 문화유산 외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알려진 천안 12경을 포함하고 있다.

(2) 공주시

공주시 경관자원의 유형은 2014년에 수립된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에 자연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으로 자원이 위치한 장소와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되어 수록되고 있다.

[표 35] 공주시의 경관분류 체계

대분	자연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중분	산림 경관	전원 경관	수변 경관	가로 경관	건축 경관	도시 녹지 경관	공장 경관	역사 경관	문화 관광 경관
소분	산림 구릉지	농경지 마을	강하천 저수지	가로 가로수	대형건축물 교량	공원 광장	공장	유적 사찰	문화관광지 박물관 전시관

자연경관은 다시 산림, 전원, 수변경관으로 구분되었고 도시경관은 가로, 건축, 도시녹지, 공장경관으로 다시 분류되었으며 역사·문화경관은 역사경관과 문화경관으로 다시 구분되고 있다.

공주시의 경관자원 분류는 국토교통부 분류방식과 다른 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자연경관과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농산어촌경관을 전원경관으로 하여 자연경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도시경관을 가로경관, 건축경관, 도시녹지경관, 공장경관으로 중분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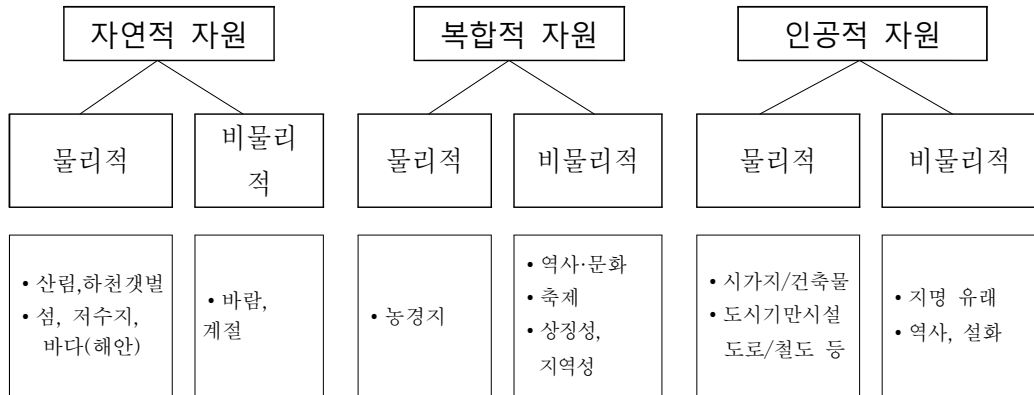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등재된 공주는 백제와 관련된 유적 지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이자 박물관 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역사·문화경관을 역사유적에 기반을 두는 역사경관과 현재 시점의 관광자원에 해당하는 문화·관광 경관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3) 보령시

보령시의 경관자원 유형 분류체계는 2011년에 수립한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다. 전반적인 체계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조사 자원이 해양, 도서를 비롯하여 역사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의 특성을 구분하여 파악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분류의 성격은 다음 [표 36] 과 같이 경관자원을 자연적, 인공적,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경관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인공적, 자연적 특성이 모두 포함되는 복합적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영역에는 자연적 성격과 인공적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는 농경지를 비롯하여 역사, 문화 등의 자원이 포함되고 있다.

[표 36] 보령시의 경관자원 성격 관점



보령시는 서해와 맞닿은 지역으로 자연경관자원 영역에 수변경관자원 외에 해안경관자원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경관자원과 대조되는 농촌경관자원 영역을 두어 면소재지, 농촌취락, 평야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표 37] 보령시 경관분류 체계

대분	산림녹지 경관자원				수변 경관자원			해안 경관자원								
중분	산맥	산정	공원		하천	호수	저수지	해수욕장	항구	갯벌	방조제	도서				
소분			자연공원	테마공원								유인도	무인도			
대분	역사문화 경관자원					주거 경관자원		농촌 경관자원			도로철도 경관자원		비물리적 경관자원			
중분	문화재					8경	주거지역	건축물	면소재지	농촌취락	평야	공업지역	도로	결절부	철도	지명·축제·행사
소분	국·지·민속·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도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4) 아산시

아산시의 경관자원 분류 체계는 아래 [표 38] 과 같이 2012년에 수립한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에 제시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의 근간은 국토교통부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대분류 항목에 있어 보령시와 유사한 체계를 채택하여 도시 중심의 시가지 경관과 농촌경관, 산단 등이 속하는 산업경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역사·문화경관자원 항목에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지정한 유·무형의 문화재를 포함시키고 있는 양상과 달리 아산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인 온천을 비롯한 장항선 폐선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38] 아산시 경관분류 체계

대분	산림녹지 경관자원			수변 경관 자원		해안 경관 자원		역사문화 경관자원										시가 지 경관 자원		농촌 경관 자원		산업 경관 자 원		도로철도 경관자원			비물 리적 경관 자원	
	중분																											
소분	문화재																											
	산맥	산정	공원	하천	저수지	갯벌	방조제	국가지문화재	도지문화재	도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온천	폐선부지	관광지	대학교	항교	마을	시가지	가로수	과수원	평야	농공지역	공업지역	도로	결절부	철도	축제행사	

(5) 서산시

서산시의 경관자원 분류체계는 다음 [표 39] 와 같이 2014년에 수립한 「서산시 경관계획」에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서산시는 서해에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충청남도 내 다른 해안지역과 같이 갯벌의 형성이 두드러지며 칠새도래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 반면 해수욕장과 도서지역은 적은 편이다. 항목에 있어 서산시의 차별성 있는 소재인 한우목장, 산단, 대산항, 아라메길 등을 염두에 두어 개별 항목을 정하고 있다.

[표 39] 서산시의 경관분류 체계

대분류		산림 및 녹지 경관자원			수변 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시가지 및 산업 경관자원			농어촌 경관자원			도로 경관자원			
항목	산림경관	녹지경관	목가적경관	하천	계곡	저수지	호소	도서	해수욕장	갯벌	철새도래지	역사자원	문화자원	시가지	산업단지	공공시설	개발항	특화마을	염전	항포구	도로	IC	체험길

(6) 논산시

논산시의 경관자원 분류 체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분류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각 항목을 포괄하는 대분류 항목을 기존의 물질 경관자원 외에 축제 및 문화행사와 도시 이미지가 포함되는 비물질 경관자원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자원의 중분류에 있어 물질경관자원에는 자연경관자원과 농촌을 포함하는 산림농촌자원, 시가지 경관자원과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을 비롯하여 역사문화 경관자원이 포함되고 있다.

논산시의 경관자원 분류체계에 있어 역사문화 경관자원 중 논산 8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논산시의 심벌마크 등 상징물을 비물질 경관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논산시 경관자원의 분류체계는 아래 [표 40] 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표 40] 논산시 경관분류 체계

대분	물질 경관자원					비물질 경관자원	
중분	자연 경관자원	산림농촌 경관자원	시가지 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역사문화 경관자원	축제 및 문화행사	도시 이미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 • 수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 농공 • 산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도시기반 • 면형도시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 • 논산8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물 • 심벌 등

(7) 당진시 / 서천군 / 태안군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의 경관자원 분류 체계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데 아래 [표 41] 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하여 6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들을 재구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천군을 비롯한 3곳 자치단체는 모두 서해에 면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자연경관자원에 하천호소경관자원 외에 해안도서경관자원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농산어촌경관자원에는 농경지, 취락지, 항·포구를 포함하였고, 시가지경관자원에는 주거지, 상업지 및 공업지 경관자원으로 구체성 있게 분류하고 있다.

[표 41] 서천군 경관자원 항목과 국토교통부 항목의 비교

유형	산림경관	하천호소경관	해안도서경관	농경지경관	취락지경관	항포구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공업지경관	도로경관	역사문화경관
	▲	▲		▲			▲			▲	▲
6 유형	산림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	역사문화경관

(8) 충청남도 경관자원 분류 체계 시사점

충청남도를 비롯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7가지 경관자원 분류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각 시·군에서 채택한 경관자원의 분류 유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형태를 답습하여 지역의 성격에 맞게 변형이 이루면서 근본적인 대분류 체계가 일관성을 잃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대분류 유형을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자연자원, 인공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분류관점에 있어서도 경관자원을 자연과 인공이라는 경계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장소에 따라 도시, 농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분류에서는 자연공원과 테마공원을 모두 자연경관으로 다루는가 하면 농촌주거자원과 농촌취락자원을 별도로 구분하는 유형 체계를 보여주면서 해당 자원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표 42] 충청남도 및 시·군 경관 유형의 특이 내용 및 모호성

지자체	성격	특이 내용	모호성
충청남도	·도농복합 ·해안지역 ·역사문화지역	·자연, 인공자원으로 대분류 ·농산어촌자원 인공에 포함 ·구성요소별 자원 별도 분리	·자연경관 항목이 적음 ·역사문화항목이 적음 ·구성요소별 자원 중복
천안시	·내륙지역 ·신도시 개발지	·자연, 인문, 역사문화로 3등분 ·경관 및 미관지구 분류 ·문화유산 및 12경 구분	·자연경관 하천 저수지 분리 ·인문과 역사문화 차별성
공주시	·도농산촌 혼재 ·금강의 중심 ·세계유산도시	·자연, 도시, 역사문화로 3등분 ·농산촌을 자연경관으로 분류	·도와 달리 농경지 자연경관 ·역사 문화관광 영역 모호
보령시	·서해안도시 ·내륙 해양혼재 ·역사문화자원 (고인돌)	·대분류를 장소에 따라 시가지, 농촌으로 다단계 ·해안경관 비중 ·비물리적 분리(축제, 지명)	·자연공원과 테마공원을 산림녹지로 분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와 8경으로 한정 ·농촌주거와 농촌취락 성격
서산시	·서해안도시 ·내륙 해양혼재 ·내포문화	·대분류를 장소에 따라 세분 ·목가적경관, 체험길 별도 구분 ·수변자원 세분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문 화자원, 공공시설로 구분 ·개발항을 산업경관구분 ·염전, 항포구 농어촌경관
아산시	·내륙 해양혼재 ·내포문화 ·신개발 도시	·역사문화 비중/항목. 온천, 폐선, 대학, 향교, 마을 ·가로수를 중분류 포함	·농촌취락과 주거 모호 ·비물리적영역, 역사문화와
논산시	·내륙 해양혼재 ·내포문화	·물질 비물질로 대분류 ·도시이미지인 상징물	·시가지자원 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차이 모호 ·역사문화 물질적 한정
서천 태안 당진		·도 분류에서 한 단계 세분	·지역 성격 차이에도 동일한 분류 체계

2) 지역의 대표경관

(1) 지역의 팔경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이나 명승지 등 명소를 팔경(八景)¹⁰⁾으로 정하여 대표 관광자원 등 지역 홍보자원으로 활용이 이루어졌었다.

팔경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¹¹⁾을 본 따 붙여졌다는 게 통설인데, 호남성 동정호(洞庭湖)에 흘러드는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의 절경을 이루는 8곳을 묘사한 ‘소상팔경도’에서 유래하고 있다. 팔경은 단순히 정적인 자연의 모습뿐 아니라 계절별, 시간별 변화하는 순간의 모습과 생활상, 자연속의 동물, 청각적 요소와 결합된 풍광을 망라하고 있어 현 시대에 있어서도 경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팔경을 소재로 하여 자연 경관뿐 아니라 문화재, 축제, 대표 시설물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명승지를 12경, 10경, 9경, 8경, 6경, 4경, 3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8경으로 분류하는 유형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선정하여 홈페이지 및 관광 포탈 등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팔경(9경, 10경, 12경 포함)을 다음 [표 43] 과 같이 해당 지자체의 자원 유형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대표 경관자원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계획상 제시된 유형을 적용하였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충청남도 경관자원 분류 유형을 따랐다. 분류 기준은 대분류 항목인 자연경관자원, 인공경관자원(인문), 역사문화자원으로 적용하여 해당 자원의 두드러진 성격이 도출 되도록 하였다.

10) 팔방은 역(易)과 관련된 기호체계인 팔괘로서 건(乾/하늘/남), 감(坎/물/서), 간(艮/산/서), 진(震/번개/동), 손(巽/바람/서남), 이(離/불/동), 곤(坤/땅/북), 태(兌/늪/동남)과 같이 방위체계에서 기인했다.

11) 1경 :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수와 상강에 밤에 뿌리는 비), 2경 :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뜬 가을 달), 3경 : 원포귀범(遠浦歸帆, 먼 포구에서 귀환하는 돛단배), 4경 : 평사낙雁(平沙落雁, 모래사장에 앉은 기러기), 5경 : 연사만종(煙寺晚鐘, 안개 낀 사찰에서 들리는 저녁 무렵의 종소리), 6경 : 어촌석조(漁村夕照, 어촌의 저녁에 비치는 석양), 7경 : 강천모설(江天暮雪, 강가에 저녁 무렵 내리는 눈), 8경 : 산시청람(山市晴嵐, 산속 저자에서 피어나는 푸른 아지랑이)

[표 43] 충청남도 시·군 팔경 자원 및 유형

지역	선정 자원	자원 구성
천안 12경	천안삼거리(역문), 독립기념관(역문), 유관순열사사적지(역문), 아리리 오광장(인문), 병천순대거리(인문), 태조산각원사(역문), 광덕산설경(자 연), 천안종합휴양관광지(인문), 왕지봉배꽃(인문), 입장거봉포도마을 (인문), 홍타령축제(역문), 천호지야경(자연)	역사문화자원 5곳 인문경관자원 5곳 자연경관 2곳
아산 9경	공세리성당(역문), 파라다이스파도고(역문), 세계꽃식물원(역문), 신 정호수공원(산림), 영인산휴양림(산림), 온양박물관(역문), 외암민속마 을(역문), 피나클랜드(역문), 현충사(역문)	역사문화자원 7곳 산림복지자원 2곳
당진 9경	왜목일출(해안), 서해대교(도로), 난지섬해수욕장(해안), 제방질주(도 로), 솔피성지(역문), 도비도해양체험(해안), 함상공원(역문), 아미망루 (산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역문)	역사문화자원 3곳 해안경관자원 3곳 도로 2곳, 산림 1곳
보령 8경	대천해수욕장(해안), 무창포바닷길(해안), 성주산휴양림(산림), 보령호 (수변), 오서산(산림), 외연도(해안), 오천항(해안), 월전죽도(해안)	해안경관자원 5곳 산림복지자원 2곳 수변경관자원 1곳
공주 10경	갑사(역문), 계룡산(자연), 고마나루(역문), 공산성(역문), 금강(자연), 금학생태공원(도시), 마곡사(역문), 송산리고분군(역문), 석장리풍경(자 연), 장벽(자연)	역사문화자원 5곳 자연자원 4곳 도시자원 1곳
계룡 10경	계룡산 천황봉(녹지), 향적산 국사봉(녹지), 천마산(녹지), 괴목정(녹 지), 주초석(역문), 솟을추(수변), 압용추(수변), 사계고택(역문), 사계술 바람길(녹지), 계룡대 통일탑(구성)	녹지경관자원 5곳 역사문화자원 2곳 수변자원 2곳 구성요소자원 1곳
논산 8경	관촉사(역문), 탑정호(자연), 대둔산(자연), 계백장군유적지(역문), 쌍계 사(역문), 개태사(역문), 옥녀봉과 금강(자연), 노성산성(역문)	역사문화자원 5곳 자연자원 3곳
서산 9경	해미읍성(역문), 마애삼존불상(역문), 간월암(역문), 개심사(역문), 팔봉 산(산녹), 가야산(산녹), 황금산(산녹), 한우목장(산녹), 삼길포항(수변)	역사문화자원 4곳 산림복지자원 4곳 수변자원 1곳
홍성 8경	오봉산(녹지), 홍주성과 여하정(역문), 만해한용운생가(역문), 그림이있 는정원(역문), 오서산(녹지), 남당항(수변), 백야김좌진장군생가(역문), 공리포구(수변)	역사문화자원 4곳 녹지자원 2곳 수변자원 2곳
서천 8경	마량리동백나무숲과 해돋이(해안), 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하천), 한산 모시마을(역문), 신성리갈대밭(하천), 춘장대해수욕장(해안), 문헌서원 (역문), 희리산자연휴양림(산림), 천방산풍광(산림)	해안도서자원 2곳 하천호소자원 2곳 역사문화자원 2곳 산림자원 2곳
청양 10경	칠갑산도립공원(녹지), 장곡사(역문), 천장호 출렁다리(수변), 칠갑산 천문대(역문), 우산성(녹지), 칠갑산장승공원(역문), 지천구곡(수변), 다 락골줄무덤(역문), 고운식물원(역문), 모덕사(역문)	역사문화자원 6곳 녹지자원 2곳 수변자원 2곳
태안 8경	백화산(산림), 안흥성(역문), 안면송림(산림), 만리포(해안), 신두리(해 안), 가의도(해안), 몽산해변(해안), 할미할아비바위(해안)	해안도서자원 5곳 산림자원 2곳 역사문화자원 1곳
금산 8경	적벽강(수변), 대둔산(녹지), 12폭포(수변), 진악산(녹지), 서대산(녹지), 천내강(수변), 귀래정(역문), 국사봉(녹지)	녹지자원 4곳 수변자원 3곳 역사문화자원 1곳
예산 8경	가야산(녹지), 충의사(역문), 수덕사(역문), 삽교평야(농산), 추사고택 (역문), 예당저수지(수변), 임존성(역문), 예산사과(농산)	역사문화자원 4곳 녹지자원 1곳 농산어촌자원 2곳 수변자원 1곳
부여 10경	부소산 낙화암(역문), 정림사지5층석탑(역문), 백제왕릉원(역문), 천정 대백제보(수변), 백마강 수상관광(역문), 백제문화단지(역문), 만수산 무량사(역문), 서동요 테마파크(역문), 성흥산 사랑나무(녹지)	역사문화자원 8곳 수변자원 1곳 녹지자원 1곳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되어 활용중인 대표 자원 135개 중 자연자원이 67개 (49.63%), 역사문화자원이 56개 (41.48%), 인공자원이 11개 (8.15%)로 나타나 자연자원 위주이면서 역사문화자원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성격이 일률적인 중에서도 해당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천안시는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인공자원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해양관광도시인 보령은 자연자원으로 해안경관자원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지정된 공주시는 전체 자원 중 역사문화자원의 비중은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10개 자원 중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 경우 농업생산자원인 농경지(예당평야)와 대표 산물인 사과를 대표 경관자원으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원의 성격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였지만 해당 자원의 성격이 대부분 복합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역사자원과 자연자원의 결합되거나 인공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결합되어 단순한 분류 체계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2) 충청남도 대표 경관자원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서는 15개 시·군이 보유한 자원 및 환경 현황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특징 및 대표 경관유형, 대표 경관자원을 아래 [표 4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경관 현황의 특징을 이루는 지역 및 자원 분포를 근거로 대표 경관유형과 경관자원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류에서도 각 지역의 성격을 역사문화경관, 자연(수변, 산림)자원, 농산어촌경관, 철도 및 도로경관 등으로 대표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44] 충청남도 지역별 경관 특징 및 대표 자원

지자체	경관 현황 특징	대표 경관유형	대표 경관자원
천안시	구릉성 평지 분포, 다수의 산업단지 교통의 요충지, 대규모 시가지 형성	역사문화경관, 철도 및 도로경관, 시가지경관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공원, 아리리오 광장 등
공주시	대부분 100m 이상 산지로 형성, 금강이 도시를 관통(우수 경관), 금강변을 따라 역사문화자원분포	역사문화경관, 수변경관	석장리 구석기 유적, 공산성, 무령왕릉, 금강 등
보령시	산, 평야, 바다가 조화, 사계절 문화관광자원 보유	수변경관, 산림경관	대천항, 오서산, 원산도, 성주산, 보령호
아산시	현충사, 온천문화자원 등 다양한 자원, 서해안을 접한 입지, 다수의 산업단지 조성	역사문화경관, 철도 및 도로경관, 수변경관	현충사, 신정호, 온양온천, 외암민속마을, 온양온천역 등
서산시	리아스식 해안, 다수의 도서, 해양생태문화 자원 및 내포문화, 산업단지 형성	역사문화경관, 수변경관, 산업단지경관	서산 테크노벨리, 천수만, 가로림만, 해미읍성, 서산마애삼존상 등
논산시	금강을 따라 강경 및 근대문화자원 분포, 백제문화 및 특색 있는 농촌마을 분포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경관	황산벌, 서원, 관촉사, 강경포구 등
계룡시	전체 면적 90% 이상 녹지 산악경관 발달, 군사도시, 인접 도시의 배후거주지 및 전원도시경관 형성	군사시설경관, 전원경관	계룡대, 향적산, 계룡산, 전원경관 등
당진시	서해와 접한 리아스식 해안, 농촌마을 형성, 해안에 산업단지 조성	수변경관, 농산어촌경관	삼교호, 서해대교, 왜목마을, 도비도 농어촌해양단지 등
금산군	주변경계를 이루는 고원분지로 자연경관 우수, 농촌경관 형성	녹지경관, 농촌경관	금산산림문화타운, 12폭포, 진악산, 인삼재배지 등
부여군	백제 역사문화경관 자원 분포, 시가지 주변 자연경관 형성, 부여를 관통하는 금강, 90% 이상 녹지	역사문화경관, 수변경관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금강 등
서천군	서해와 접하며 대부분 준평원 형성, 농경지 및 금강 역사문화생태 관광벨트와 연계한 어촌경관 형성	농산어촌경관, 수변경관	서천평야, 홍원항, 신성리갈대밭,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등
청양군	산, 하천, 농산촌이 조화된 전원경관 형성, 국가 생태계 연결축인 칠갑산 도립공원 보유	녹지경관, 전원경관	칠갑산도립공원, 천장호, 지천구곡, 산꽃마을 등
홍성군	서해안시대 성장 잠재력 보유, 내포문화권개발, 충남도청 소재지	역사문화경관, 수변경관, 신도시경관	한용운생가지, 홍주성과 여하정, 내포신도시, 남당항
예산군	충남도청 소재지로 경관 관리, 경계부에 산지형성, 내포문화역사, 관광지 경관 발달	신도시, 역사문화경관	내포신도시, 예당관광지, 추사고택, 덕산온천관광지 등
태안군	자연,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리아스식 해안 및 구릉성 산지 형성	수변경관, 녹지경관	태안해안, 신두리사구, 안면도자연휴양림, 백화산 등

2. 경관기록화사업 기반 분석

1) 시·군 경관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1) 설문개요 및 응답자 현황

충청남도 15개 시·군 경관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군의 경관사업현황과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관사업현황에서는 시·군에서 시행된 경관사업의 유형, 기간, 예산 및 경관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경관사업 등을 질문하였다.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에서는 경관업무 담당자들의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주체(도, 시·군) 방향,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시 사업 구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12개 시·군 경관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27명이 응답하였다. 재직기간을 답하지 않은 1인을 제외한 26명의 재직기간은 아래 [표 45] 와 같다. 응답자의 재직기간 비율은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재직자가 전체의 30.8%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재직자가 전체 응답자의 57.7%로 나타났다.

[표 45] 응답자 재직기간

재직기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년 이상	합계
응답자 수	6	5	7	8	26
비율 (%)	23.1	19.2	26.9	30.8	100

(2) 시·군 경관사업 추진 현황

충청남도 시·군에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경관사업의 유형은 경관법 시행령, 충청남도 경관조례, 시·군 경관조례에서 명시된 경관사업을 토대로 아래 [표 46] 과 같이 7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장 많이 시행된 경관사업 유형은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 건축, 시설물 설치·정비·관리 사업으로 10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경관사업은 5개 사업이 시행되었다.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아직까지 시·군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경관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 아산시 6개 유형의 경관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시·군은 일반적으로 1~2개 유형의 경관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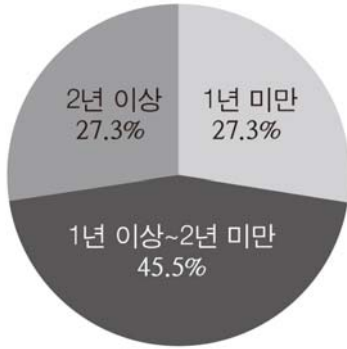
[표 46] 시·군 경관사업 유형

경관사업 유형	빈도	비율
공공공간, 건축, 시설물 설치·정비·관리 사업	10	38.5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5	19.2 %
자연자원 정비 및 개선사업	4	15.4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3	11.5 %
경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7.7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2	7.7 %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	-
합계	26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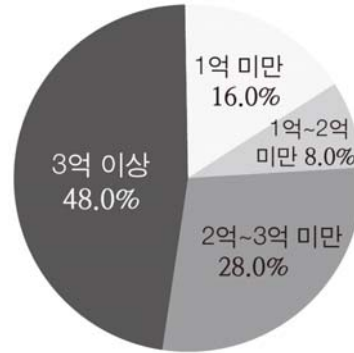
시·군에서 시행되는 경관사업들의 일반적인 수행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전체 사업 중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이상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도 27.3%로 나타났다. 경관사업 중 72.8%가 1년 이상 사업기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관사업에 소요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사업은 16.0%,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업은 8.0%,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사업은 28.0%이며 3억 원 이상 사업은 48.0%로 나타났다. 전체 경관사업의 76.0%가 2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경관사업 기간



[그림 15] 경관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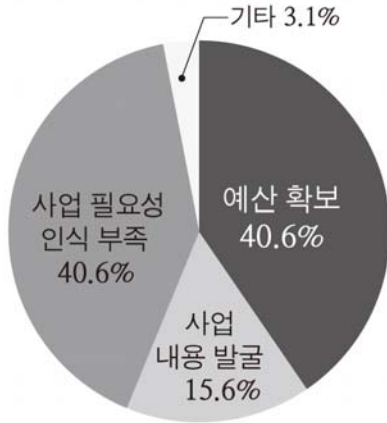
시·군 경관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이 [표 47]과 같이 ‘국비+시·군비’, ‘도비+시·군비’, ‘국비+도비+시·군비’로 구성되거나 시·군비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시·군비 구성 비율은 도비 지원시를 제외하고 50% 미만으로 적게 차지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시·군 경관사업비 구성 비율

사업비 유형	구성 비율	사업비 유형	구성 비율
국비 + 시·군비	- 70 : 30	도비 + 시·군비	- 50 : 50
	- 60 : 40		- 33 : 67
	- 50 : 50		- 30 : 70
국비 + 도비 + 시·군비	- 50 : 25 : 25	시·군비	100

15개 시·군 중 아산시가 유일하게 시비 100%로 구성된 경관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관사업의 예산 구성 비율을 살펴 본 결과 국비와 도비 지원 없이는 시·군의 경관사업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 방안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경관사업 추진시 문제점

시·군에서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해가 되는 문제점으로 ‘예산확보’, ‘사업 내용 발굴’,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예시로 들어 조사한 결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확보’가 각각 40.6%의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시·군의 원활한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 ‘경관부서 조직 및 인력확충’, ‘충분한 예산 지원’,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경관계획 및 관련 지침 마련’,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많은 담당자들이 ‘조직 및 인력 확충’, ‘예산 확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 외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는 것이 경관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이었다. 지자체장의 인식과 주민의 인식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도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 의견

시·군 경관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타 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 인지여부, 사업 추진의 주체 설정,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타 지자체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확인한 결과 27명의 응답자 중 6명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관기록화사업이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인식이 적은 요인은 경관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록화사업에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시·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 담당자들이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경관사업은 [표 48] 과 같이 ‘지역의 역사문화 관련 사업’과 ‘공간·건축·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관기록화사업’은 순위에서 가장 떨어지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시·군 담당자가 생각하는 중요 경관사업

경관사업 유형	빈도	순위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18	1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 건축, 시설물 설치·정비·관리 사업	13	2
경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13	2
지역의 자연자원 정비 및 개선사업	11	4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8	5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4	6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2	7
기타사업	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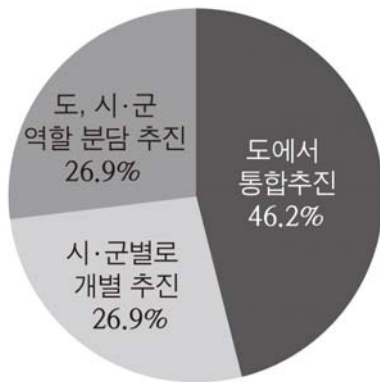
이 문항 결과 중 주목할 내용은 ‘경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이 3번째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관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활한 경관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경관기록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2%는 도의 경관기록화사업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 추진과 시·군 개별 추진은 각각 26.9%로 나타났다. 일견, 도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시·군이 경관기록화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3.8%)으로 나타났다.

추진 주체에 대한 의견은 같은 지자체에서도 직급에 따라 다르며 재직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직기간이 길수록 도의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재직자의 50% (4명)는 도가 통합추진을, 25%(2명)는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을, 나머지 25%만이 시·군 개별추진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7명 중 1명만이 시·군 개별추진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종합한다면 10년 이상 재직자 15명 중 3명만이 시·군의 개별적인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시·군이 자체로 수행하는 사업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기록사업의 주체

[표 49] 재직기간에 따른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향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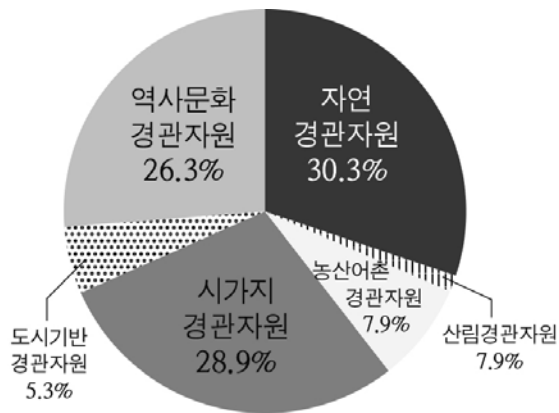
사업추진방식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도 추진	3	2	3	4
도·시·군 역할분담	1	1	3	2
시·군 추진	2	1	1	2
합계	6	5	7	8

마지막으로 경관기록화사업 시 중점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경관자원 유형을 경관조사지침에 따라 등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고, 이 중 ‘자연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록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에 대한 중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에 따라 경관기록자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추가적인 경관기록 대상으로는 개발사업 전후의 경관변화 기록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 제안되었다.

(4) 충남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시 주안점



[그림 18] 경관기록 대상의 우선순위

본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경관사업 및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 볼 때 시·군 담당자들은 ‘경관 기록화사업’을 중요한 경관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경관교육 및 홍보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시·군 차원에서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 시에는 ‘교육 및 홍보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관사업과 실제 시행되는 사업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공간, 건축, 시설물 관련 사업들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군 담당자들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보더라도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의 경관사업 관련 예산, 조직, 인력구조를 볼 때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 차원의 중장기 경관사업 마스터플랜과 예산 확보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기록화사업을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일종의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관계획 체계 내에서의 역할 정립과 타 경관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경관기록화사업을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타 경관사업의 모니터링 주체가 되도록 구상하는 것이 향후 실행사업 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관기록화사업 더 나아가 경관사업의 주안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기록화사업은 시·군의 경관사업 추진 역량 즉, 예산과 조직을 검토

할 때 시·군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결과에서 보듯 시·군이 참여하는 구도로 진행하되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관기록화사업을 타 경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경관사업인 교육·홍보사업과 연계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관계획 내의 경관사업 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시·군 경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경관기록화사업의 기간은 2년, 소요 예산은 3억 원 전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에서 대응이 가능하게 그 동안의 경관사업과 유사한 규모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잠정적인 사업규모로 사업내용 구성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관사업 중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성은 높는데 비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의 제약점

(1) 사업 추진 근거 미흡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해당 지자체의 경관조례의 내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경관조례의 경관사업 목록에는 경관기록화사업 조항이 없으며 경관자원 조사 및 사진기록물 생성 등 소극적인 단계인 경관자원 조사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군을 총괄하는 통합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화는 상위 단체인 광역도가 총괄하는 통합적인 구상과

계획이 담긴 도 차원의 경관계획 수립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수행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이다. 도차원에서 설정한 경관 광역 단위의 경관목표를 비롯한 경관 권역 등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시·군 계획이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계의 불일치로 인해 경관기록화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역할분담과 공동추진에 어려움이 예측된다. 전 시·군을 총괄하여 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의 역할과 각 시·군 간의 자원선정에 대한 관점 차이의 극복 및 결과물의 공동 활용에 있어서의 협력체계 마련 및 운영이 요구된다.

(3) 효용 기대성

충청남도는 경관과 관련된 시행 사업인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와 시·군의 경관과 관련한 협력 및 대화 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충청남도 전반에 걸친 계획성 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서해안시대를 맞아서는 해안경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구체적인 경관관리 및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시·군의 개별적인 지역 모습 가꾸기로는 규모면에서 지역의 장소성을 확인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시작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도가 사업 운영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시·군의 제약점

(1) 도 경관계획과 정합성 결여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 근거하는데 충청남도 각 시·군의 경관조례에는 경관사업으로 경관기록화가 명시되어 있어 추진 근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도의 경관

조례에는 경관기록화사업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와 시·군 간의 정합성의 결여는 경관기본계획의 추진 과정과 결과물에 나타나고 있는데 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경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전체를 아우르는 경관 구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시·군간 조율과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경관기록화사업에 있어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통합 수행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2) 경관에 대한 기대

충청남도 시·군의 다양한 유형과 소재의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 자연경관, 역사문화 관련 자원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경관소재는 충청남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경관소재는 단일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성격이 결합되거나 복합화 되며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을 이해시키고 지역 자긍심을 갖추기 위한 쉽고 효율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군의 장소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기록화 사업을 통한 지역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한편 기록화와 활용을 통해 지역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시와 부여군이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에 등재된 이후 문화자원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표 50] 주체별 경관기록화사업 도입에 따른 문제점

중앙부처의 제도마련 및 지원책	◁	-경관자원 조사, 법령 및 수립지침 -경관기록화에 관한 법령은 미흡 -국가차원의 기록화 사업 방향성 상이
충청남도의 제도 구비 협력체계	◁	-조례 및 사업 수행근거 미흡 -도차원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시·군의 도입 태세	◁	-사업추진 근거 마련/경관 조례 명시 -경관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설정 -보유자원의 활용에 대한 요구

4) SWOT 분석

(1) 강점

충청남도는 자연자원 측면에서는 서해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 향만, 도서 등의 해양자원과 금강을 비롯한 내륙 산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지정된 백제의 옛 도읍인 공주시와 부여군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 서해안 내포문화를 비롯하여 논산시 및 계룡시를 거점으로 하는 기호문화 등 다양한 문화와 경관자원이 다채로운 지역이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경관 제도의 실행수단인 공공디자인을 행정에 도입하는 등 지역의 경관 보존 및 관리와 개선에 관심을 쏟아 왔다. 경관법 제정 이후에는 도 및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 하는 등 경관에 대한 인식과 활용의 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경관자원들은 개별적, 또는 서로의 성격이 결합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유·무형의 지원으로 인식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2) 약점

충청남도가 다양한 유형별 경관자원을 보유했음에도 이들 자원을 집대성하여 기록화 할 수 있는 경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광역도 차원에서 개별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여러 시·군을 총괄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제도 및 기록화사업이 추진되고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과 그에 따른 협력체계와 결속력이 요구된다.

경관정책을 이끌어 갈 경관 관련 전문가가 행정 및 정책 수립 분야에 부족한 것도 기록화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가는데 저해 요인 되고 있다.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추진자원단의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구성하는 인력이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행정조직내의 전문가가 참여되어야 하는데 행정 조직 내에 경관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충청남도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환경이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모습의 빠르게 변천되고 있지만 본래의 모습이나 그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면서 전통성의 상실과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기회

경관기록화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 장려에 따라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시작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관계획 및 구상에서 제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관기록화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 차원의 경관기록사업은 주제 및 유형별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관기록화사업은 실행가능성이 높고 사업 성과물의 활용이 지역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그 효과와 이익이 이어지기 때문에 경관사업 중 활용성과 실행력이 높은 사업이다. 충남 각 지역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양상은 오히려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해야하는 타당성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여기에 역사문화도시인 공주시와 부여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시에 지정됨이 지역의 경관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접근하기 친숙하며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관기록화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4) 위협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구조, 도시민의 생활에 변화를 동반하며 경관제도의 핵심이 경관자원의 보존과 배치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포털사이트와 각종 인터넷 매체, 게임 분야에서 속속 선보이는 영상정보와 그래픽 수준의 급속한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제공자 관점에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수준과 검색 체계, 이용자 상호 작용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표 51] 충청남도 경관기록사업 도입에 따른 SW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및 내륙 자연 경관자원 보유 -백제, 내포, 기호문화 자원 보유 -경관 관련 제도 수립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 -경관에 대한 높은 인식도 및 활용 의지 <p style="text-align: cent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기록사업을 수행할 근거 미비 -광역(도) 차원의 총괄 수행의 한계 -경관 분야 전문가 및 조직 부족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방법론 정립 미비 <p style="text-align: center;">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 -중앙부처 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유리 -지역의 도시화로 경관기록사업 타당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지정에 따른 수요 <p style="text-align: center;">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속한 지역 변화로 경관 연속성 단절 -매체 다변화, 영상수준 향상으로 요구상승 -광역도에 따른 -경관에 대한 높은 인식도 및 활용 의지 <p style="text-align: center;">T</p>

제5장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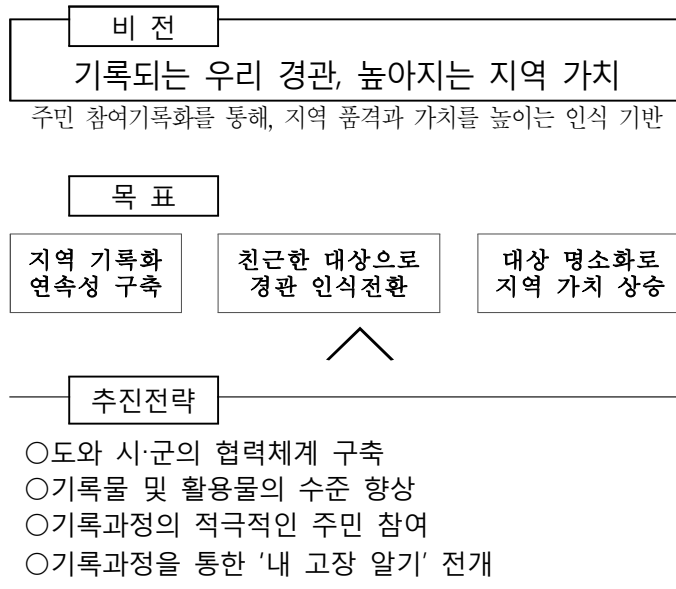
1. 경관기록화 사업 비전

1) 비전 및 목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및 시·군에 도입되어 수행될 경관기록화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추진 방법과 각 주체별 역할 및 수행 체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표 과제의 달성을 경관기록화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향하고 도달하여야 할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충청남도의 경관제도를 비롯한 경관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의지에 비해 사업 수행 여건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기반에 기인하여 “기록되는 우리 경관, 높아지는 지역 가치”로 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인식 기반의 계기로 한다.

이와 같은 비전 제시와 함께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수립을 위한 목표로서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영상 수준의 향상, 기록과정의 주민참여, 기록과정을 통한 내 고장 알기를 제시한다.



[그림 19] 충청남도 경관기록화 사업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경관기록화사업이 기록물로서의 적합성과 활용성이 갖추어져 구축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긴밀한 지원,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과물의 활용에 이르는 협력체계가 구사되어야 한다. 둘째, 구축된 기록물의 대표적인 활용방법인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에 탑재된 영상물의 품질이나 전시방법과 같이 진부함을 벗어나 이용자의 층을 넓히고 시각적 수준과 활용상 요구에 부합되도록 매체 선정과 품질 유지 및 콘텐츠 다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기록화사업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관심도 및 가치인식을 제고하고 활용물에 대한 접속과 활용이 지속되게 한다. 넷째, 경관기록화사업의 자료 수집 과정 등을 통해 내 고장 알기 등 붐을 조성하며, 정립된 기록물은 각급 학교의 부교재 및 학습도구로 활용하여 경관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정착하도록 한다.

2. 기획연구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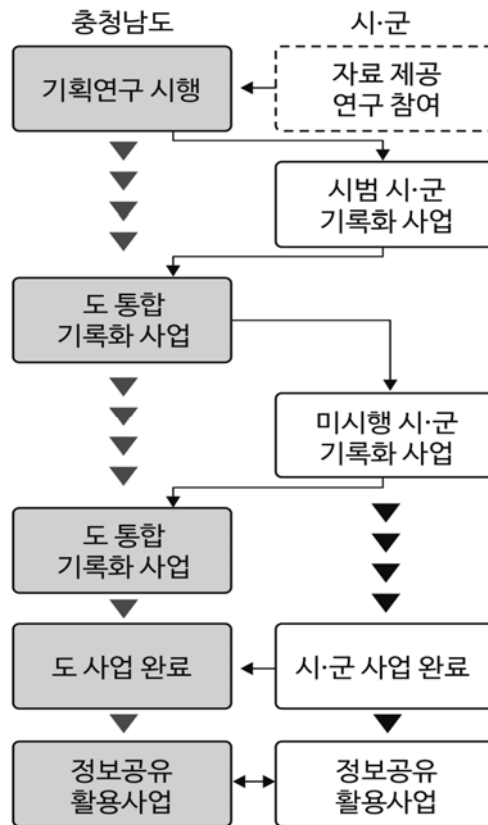
1) 도와 시·군의 역할

광역시의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사례의 고찰을 통해 기록화사업 시행 전, 사업의 목적 및 활용방안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기록대상 선정, 촬영, DB 구축,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연구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충청남도에서 이와 같은 기획연구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록화사업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광역시와 같이 해당 구·군을 총괄하여 진행하거나 도와 각 기초지자체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지에 대한 사업 추진형태와 착수시기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인 충청남도는 경관자원의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며 개별 시·군마다 자연적, 역사·문화적 특성을 강한 경관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이미지의 분류 및 영역이 간결한 광역시와 달리 기록화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형편으로 도와 시·군 간의 협력 및 사업영역의 분담, 사업 운영주체, 대상 및 유형의 규정, 기록 매체의 선정, 활용 방안 등 복합적인 추진 방안을 다룰 수 있는 통합 기획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기초지자체로 이루어진 광역지자체는 어느 주체에서 기록화 사업을 착수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와 시·군, 각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전제로 하여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20] 충청남도 기록화 사업 진행과정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차원의 경관기본계획에 앞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높았던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수립됨에 따라 선 수립계획의 범주를 넘지 못해 계획의 위계가 흔들리면서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수행될 경관기록화사업은 ‘기획연구’와 ‘기록화사업’ 단계를 구분하여 도차원에서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기획연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20] 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 차원에서 수립된 기획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우선 시행할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 차원의 기획연구를 완료한 후, 도 통합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시·군의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도 통합기록화사업과 시·군 기록화사업은 진행과정에 자료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기록물의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는 활용 단계로 이어진다.

기획연구는 도차원의 단독 수행 방식이 아닌 시·군 관계자로 구성된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지원단’(가칭)에 의해 자료의 상호 지원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획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록대상의 분류 및 기록대상 선정 방안의 기본 체계를 경관기록화사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기초지자체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는 단계를 거친다. 1차 경관사업화 과정에서는 기획연구에 근거하여 각 기초지자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수립한 경관대상 유형 체계 및 기록화 대상 선정 기본체계를 해당 지자체의 환경과 의도에 맞게 재편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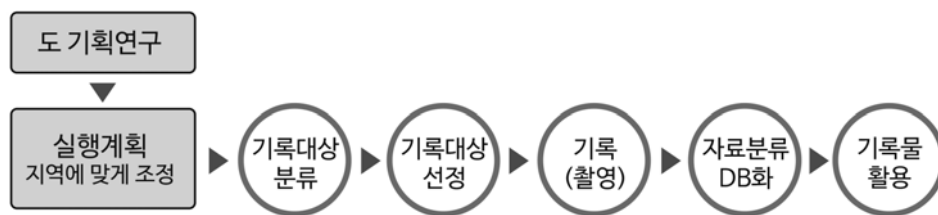
시·군의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에는 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 지원단이 가동되며 사업진행 및 완료 후 나타나는 문제는 도에서 진행하는 기획연구에 적용되어 보완과정을 거친 후 완료가 된다.

시·군의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보완되어 완성된 기획연구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화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경관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닌 군 지역의 참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완성된 도 통합기록화 내용과 시·군의 기록화 내용은 ‘관광포털 탑재’, ‘시·군 간 교차 소개’, ‘도 단위의 경관 콘테스트’ 등 도가 총괄하는 도 단위의 통합 홍보 방안 구축을 통해 규모성과 체계성이 갖추어진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도록 한다.

2) 기록대상의 분류 유형

경관기록화사업에 있어 기록화 대상의 유형은 경관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관자원 유형을 근간으로 할 수 있다. 경관자원의 유형은 기록화사업 추진에 있어 기록 자료의 원활한 분류가 이루어지게 하며, 해당 자료의 경관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기반 체계로 작용된다. 경관자원 유형 분류는 무엇보다도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체성이 기록대상의 유형 분류 및 각 유형이 조합된 구성 체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므로 경관 기록대상의 유형 체계의 정립은 경관기록화사업에 있어 지역의 경관 환경과 기록화사업의 활용방향에 부합되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림 21] 시·군 기록화사업 진행과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자원의 유형 분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관계획수립 지침을 근간으로 각 지역에서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경관자원 유형분류 방식의 고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경관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광역도 차원의 통합성이 적용되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충청남도에서 활용될 경관기록 대상 유형은 각 자원의 단편적인 성격을 넘어 복합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도차원의 기본적인 대분류 및 중분류로 이루어진 기본 형식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따른 세분과 조합이 가능한 경관대상 유형 체계를 제안한다.

(1) 경관대상 유형의 성격 정립

경관기록대상의 성격을 크게 구분 짓는 관점은 대분류 항목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경관자원’ 및 ‘인공경관자원’으로 이루어진 구조와 ‘고정적인 기반’ 및 ‘도시생활 기반’, ‘도시변화’로 이루어진 구조, ‘산림녹지경관자원’ 및 ‘수변 및 해안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등 장소와 성격에 따른 복합적인 구조 유형과 같이 일률적인 분류체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대립요인인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 만으로 보더라도 경관대상의 성격은 아래 [표 52] 와 같이 자연 중심 자원, 자연 위주에 인공적인 요소가 결합된 자원, 자연 요소와 인공요소가 대등한 자원, 인공 위주에 자연적인 요소가 결합된 자원, 인공 중심의 자원으로 자원의 성격이 다채롭게 구현될 수 있다.

[표 52] 성격 조합에 따른 경관자원의 유형 및 자원 예시

자원 성격	자연 중심	자연위주+인공	자연=인공	인공위주+자연	인공 중심
해당 자원	지형, 자연현상, 해안, 군락	공원, 방조제	해안도로, 방조제	농촌 취락, 경작지	건축물

‘자연적 성격’과 ‘인공적 성격’ 만으로는 경관자원의 성격을 구분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적 성격이나 인공적 성격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경관자원 중 비중 있게 포함되는 ‘문화적 성격’을 더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경관자원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앞서 적용한 자연적 성격 ‘W’과 인공적 성격 ‘A’의 분포에 문화적 성격 ‘C’를 교차하게 구성하였으며, 비중이 큰 요소는 대문자, 작은 요인은 소문자로 표기하였고 양쪽 성격이 대등 할 경우 N으로 표기하여 다음 [그림 22] 와 같은 경관자원의 성격을 표시할 수 있는 ‘경관자원 성격코드’ 체계를 제안한다.

또한 해당자원의 구성 규모에 따라 해당 자원이 단일 자원이면 ‘2’, 여러 자원으로 이루어진 복합자원은 ‘3’, 해당자원을 부분적인 대상은 ‘1’로 표기하며 성격코드와 결합하여 표시한다.

문화			C						
문화 비중	CW	Cw	Cn	Ca	CA				
문화 가미	Wc	wc	Nc	ac	Ac				
문화 희박	W	w	N	a	A	+	3	2	1
	자연	자연 위주	인공 자연	인공 위주	인공		복합 자원	단일 자원	미시 자원

[그림 22] 자연, 인공, 문화 요소에 따른 경관자원 성격코드 체계

아래 [표 53] 은 ‘경관자원 성격코드’의 조합에 따른 각 코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표경관을 각 코드에 대입했을 때 분류되는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3] 경관자원 성격코드에 따른 자원의 성격과 해당자원

유형	코드	성 격	해 당 자 원
자 연 계 열 W	W	자연 중심	무창포바닷길, 외연도, 계룡산
	w	자연 > 인공	왕지봉배꽃, 영인산휴양림, 사계절솔바람길
	Wc	자연 > 문화	전설이 깃든 장소, 명승지 등
	wc	자연 > 인공=문화	금산인삼경작지, 태안독살
인 공 계 열 A	A	인공 중심	산업단지, 건축물
	a	인공 > 자연	서해대교, 제방질주, 보령호, 탑정호, 남당항, 삽교평야
	Ac	인공 > 문화	간월암, 성흥산사랑나무, 아라리오광장, 병천순대거리
	ac	인공 > 자연 =문화	오천항, 고은식물원
문 화 계	C	문화 중심	흥타령축제
	Cw	문화 > 자연	관촉사, 갑사, 마애삼존불

별 C	Ca	문화 > 인공	독립기념관, 사계고택, 해미읍성, 천안삼거리, 공세리성당
	Cn	문화 > 자연 = 인공	금학생태공원, 김좌진장군 생가
3	3	복합 자원	태조산 각원사, 계룡산, 외연도
2	2	단일 자원	대부분 자원
1	1	세분 자원	왕지봉 배꽃

아래 [표 54] 는 ‘경관자원 성격코드’ 를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대표경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팔경에 적용 했을 때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시·군의 팔경은 자연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위주, 자연과 인공의 결합, 자연과 문화 자원이 결합된 형태의 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54] 지역의 팔경 자원 성격

지역	자원 성격	W	w	Wc	wc
		A	a	Aw	aw
		C	Cn	Ca	Cw
천안 12경	천안삼거리(Ca), 독립기념관(Ca), 유관순열사사적지(Ca), 아리리오광장(Aw), 병천순대거리(Aw), 태조산각원사(Cm), 광덕산설경(W), 천안종합휴양관광지(a), 왕지봉배꽃(w), 입장거봉포도마을(w), 홍타령축제(C), 천호지야경(W)	2	2	-	-
		-	1	2	-
		1	-	3	1
아산 9경	공세리성당(Ca), 파라다이스스파도고(Aw), 세계꽃식물원(w), 신정호수공원(w), 영인산휴양림(W), 온양박물관(Ca), 외암민속마을(Cm), 피나클랜드(w), 현충사(Cm)	1	3	-	-
		-	-	1	-
		-	-	2	2
당진 9경	왜목일출(W), 서해대교(a), 난지섬해수욕장(w), 제방질주(a), 솔피성지(Ca), 도비도해양체험(Wc), 함상공원(wc), 아미땅루(w),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Ca)	1	2	1	1
		-	2	-	-
		-	-	2	-
보령 8경	대천해수욕장(w), 무창포바닷길(W), 성주산휴양림(W), 보령호(a), 오서산(W), 외연도(W), 오천항(a), 월전죽도(W)	5	1	-	-
		-	2	-	-
		-	-	-	-
공주 10경	갑사(Cm), 계룡산(W), 고마나루(Wc), 공산성(Cm), 금강(W), 금학생태공원(w), 마곡사(Cm), 송산리고분군(Cn), 석장리풍경(W), 창벽(W)	4	1	1	-
		-	-	-	-
		-	1	-	3
계룡 10경	계룡산 천황봉(W), 향적산 국사봉(W), 천마산(W), 괴목정(W), 주조석(C), 솟을추(W), 암용추(W), 사계고택(Ca), 사계솔바람길(w), 계룡대 통일탑(Aw)	6	1	-	-
		-	-	1	-
		1	-	1	-
논산 8경	관촉사(Cm), 담정호(a), 대둔산(W), 계백장군유적지(C), 쌍계사(Cm), 개태사(Ca), 옥녀봉과 금강(W), 노성산성(Cn)	2	-	-	-
		-	1	-	-
		1	1	1	2
서산	해미읍성(Ca), 마애삼존불상(Cn), 간월암(Wc), 개심사(Cm), 팔봉산	3	-	1	-

9경	(W), 가야산(W), 황금산(W), 한우목장(a), 삼길포항(a)	-	2	-	-
		-	1	1	1
홍성 8경	오봉산(W), 홍주성과 여하정(Ca), 만해한용운생가(C), 그림이있는정원(a), 오서산(W), 남당항(aw), 백야김좌진장군생가(C), 궁리포구(a)	2	-	-	-
		-	2	-	1
		2	1	-	-
서천 8경	마량리동백나무숲과 해돋이(W), 금강하굿둑철새도래지(a), 한산모시마을(Ca), 신성리갈대밭(W), 춘장대해수욕장(w), 문헌서원(Ca), 회리산자연휴양림(W), 천방산풍광(W)	4	1	-	-
		-	1	-	-
		-	-	2	-
청양 10경	칠갑산도립공원(W), 장곡사(Cm), 천장호 출렁다리(a), 칠갑산 천문대(aw), 우산성(Cn), 칠갑산장승공원(Cm), 지천구곡(W), 다락골줄무덤(C), 고운식물원(a), 모덕사(Ca)	2	-	-	-
		-	2	-	1
		1	1	1	2
태안 8경	백화산(W), 안홍성(Cm), 안면송림(W), 만리포(a), 신두리(W), 가의도(W), 몽산해변(W), 할미할아비바위(W)	6	-	-	-
		-	1	-	-
		-	-	-	1
금산 8경	적벽강(W), 대둔산(W), 12폭포(W), 진악산(W), 서대산(W), 천내강(W), 귀래정(W), 국사봉(W)	8	-	-	-
		-	-	-	-
		-	-	-	-
예산 8경	가야산(W), 충의사(Ca), 수덕사(Cm), 삼교평야(a), 추사고택(Ca), 예당저수지(a), 임존성(Cn), 예산사과(aw)	1	-	-	-
		-	2	-	1
		-	1	2	1
부여 10경	부소산 낙화암(Wc), 정림사지5층석탑(Ca), 백제왕릉원(C), 천정대백제보(a), 백마강 수상관광(Cn), 백제문화단지(Ca), 만수산 무량사(Cw), 서동요 테마파크(Ca), 성흥산 사랑나무(Wc)	-	-	1	-
		-	1	-	-
		1	1	3	1

[표 55] 지역의 팔경자원 성격 분석표

지역	유형	W	w	Wc	wc	Aa	w	Aw	aw	C	Cn	Ca	Cw	합
도 시 지 역	천안	2	2	0	0		1	2	0	1	0	3	1	12
	아산	1	3	0	0		0	1	0	0	0	2	2	9
	당진	1	2	1	1		2	0	0	0	0	2	0	9
	보령	5	1	0	0		2	0	0	0	0	0	0	8
	공주	4	1	1	0		-	0		0	1	0	3	10
	계룡	6	1	0	0		-	1		2	0	0	0	10
	논산	2	0	0	0		1	0		1	1	1	2	8
	서산	3	0	1	0		2	0		0	1	1	1	9
	소계	24	10	3	1	0	8	4	0	4	3	9	9	75
	비율	32.0	9.3	4.0	-	-	10.7	5.3	-	5.3	4.0	12.0	12.0	
비 도 시	홍성	2	0	0	0		2	0	1	2	1	0	0	8
	서천	4	0	0	0		1	0	0	0	0	2	0	8
	청양	2	0	0	0		2	0	1	1	1	1	2	10

지역	태안	6	0	0	0		1	0	0	0	0	0	1	8
	금산	8	0	0	0		-	0	0	0	0	0	0	8
	예산	1	0	0	0		2	0	1	0	1	2	1	8
	부여	0	0	1	0		1	0	0	1	1	3	1	8
	소계	23	1	1	0	0	9	0	3	4	4	8	5	58
	비율	40.0	1.7	1.7	-	-	15.5	-	5.2	6.9	6.9	13.8	13.8	
합비율	총계	47	11	4	1	0	17	4	3	8	7	17	14	133
	비율	35.3	8.3	4.0	0.8	-	10.5	3.0	2.3	6.0	5.3	12.8	10.5	

충청남도 각 지역의 팔경을 ‘경관자원 성격코드’에 대입하여 성격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막론하고 순수한 자연자원이 35.3%로 가장 높은 활용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이 결합된 문화자원이 12.8%로 뒤를 잇고 있으며, 자연과 인공자원이 함께 결합된 문화자원과 자연이 결합된 인공자원이 동일하게 10.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순수한 단일 인공자원, 모든 자원이 결합된 자연자원 및 인공자원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고 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활용 형태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순수자연 활용이 비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 결합된 인공자원의 활용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역에 따른 경관유형 체계

충청남도 및 시·군에 통용될 경관유형 체계는 다른 광역시의 사례와 달리 광역도와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지역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 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관기록화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체계의 일관성과 지역에서 활용 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충청남도 시·군의 경관자원 분류체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되는 상태에서 도차원의 기준이 되는 유형기준과 이를 근간으로 하여 활용하는 시·군의 경관자원 유형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충청남도에서 경관기록화사업에 활용될 경관유형 체계는 위 [표 56] 과 같이

[표 56] 충청남도 경관자원 유형 제시(안)

	개 념	대 상	경관 자원
자연경관	자연 원형 인공 최소화	지형	리아스식 해안, 해식애, 용기 지형 등
		내륙 자원	산림, 국도립공원, 하천, 자연호수, 습지
		해안 자원	해안, 도서, 갯벌 등
		기상/일기/현상	일출, 낙조, 안개, 설경, 바닷길 열림 현상 등
		야생 동식물	자연 군락지, 야생동물, 해양생물 등
농산어촌경관	자연+생산, 취락	생산	경작지, 과수원, 간척지, 염전, 어장, 생산림, 양식장 등
		시설	저수지, 농수로, 항포구, 선착장, 여객선터미널, 공동 공동시설(우물터, 공동 창고) 등
		취락	지역 특유의 주거 양식, 당산목 등
도시경관	도시구조 생산, 주거	생산경관	시장, 상점가, 업무장소, 산업단지 등
		시설	도로, 교량, 교차로, 진입로, 철도 및 역사,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등
		건축 및 주거	주요 공공건축물, 개인건축물, 주거경관, 주택단지 등
역사문화경관	역사문화	유형문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무형문화	해당 장소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이벤트
		지역상징경관	지역 팔경 및 콘테스트 선정 자원
	부정적 경관	재난, 재해	재난, 환경 오염, 재해 등 부정적, 제한적 자원

대분류로 구성되는데, 인공이 최소화된 자연그대로인 ‘자연경관’, 자연환경과 생산 및 취락이 결합된 ‘농산어촌경관’, 도시를 배경으로 생산과 주거의 모습이 나타나는 ‘도시경관’,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원인 ‘역사문화경관’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부정적 경관이 덧붙여진다.

자연경관자원의 대상에는 지형, 내륙 및 해안자원, 기상, 일기 등 자연현상과 야생 동식물이 포함된다. 농산어촌경관자원에는 농산어촌의 생산지, 시설 및 취락 모습이 포함된다. 도시경관자원으로는 시장 및 산업단지 등 도시 생산기반과 도시기반시설, 건축 및 주거가 해당되며 역사문화자원에는 유무형의 문화재와 지역상징경관을 포함하고 있다.

도에서 제시한 경관유형 체계는 시·군에서 활용 시 대분류 네 가지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의 성격에 맞게 중분류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7] 지역에 따른 경관유형 항목 변경 예시(안)

도 기본유형	대분류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부정적경관
	중분류	지형	내륙자원	해안자원	기상일기현상	야생동식물	생산	시설	취락	생산	기반시설	건축및주거	유형문화	무형문화	지역상징	
내륙유형	대분류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부정적경관
	중분류	지형	내륙자원	기상일기현상	야생동식물	새유형	생산	시설	취락	새유형	기반·생산	건축및주거	유형문화	무형문화	지역상징	
해안유형	대분류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도시경관			역사문화경관			부정적경관
	중분류	지형	내륙자원	해안자원	기상일기현상	야생동식물	새유형	시설·생산	취락	생산	기반·생산	건축및주거	유형문화	무형문화	지역상징	

위 [표 57] 은 시·군에서 활용 시 중분류 항목의 수를 각기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항목으로 교체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내륙지역에 적용될 경관유형의 경우 내륙 산지 자원을 중분류에서 세분화하며 농산어촌의 자원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도시경관의 중분류 항목의 통합하거나 축소한다. 해안지역에 적용할 유형에 있어서도 자연경관의 중분류에서 도서경관 항목을 추가하거나 농산어촌경관에서 항·포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 기록화 대상 선정

(1) 기록화 대상 선정 기준

광역시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화 대상 선정에 문헌자료 분석, 미디어 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되었다. 경관기록대상 선정 시 판단기준의 비중이 큰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으로 경관계획 수립 시 이미 문헌조사, 매체조사, 현지조사 등이 수반된 면밀한 조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이다.

문헌조사는 관련 계획서 및 역사, 문화, 관광, 축제와 관련된 자료나 고문헌 등을 참고하며 신문 및 인터넷 상에 보도되었거나 구축된 자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기록대상을 선정하는 판단기준을 삼는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의해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도 주요한 기록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충청남도의 경관기록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경관계획이나 관련 계획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대외 인지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설정된 경관자원 유형의 구성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게 선정한다.

[표 58] 경관대상 선정 기준항목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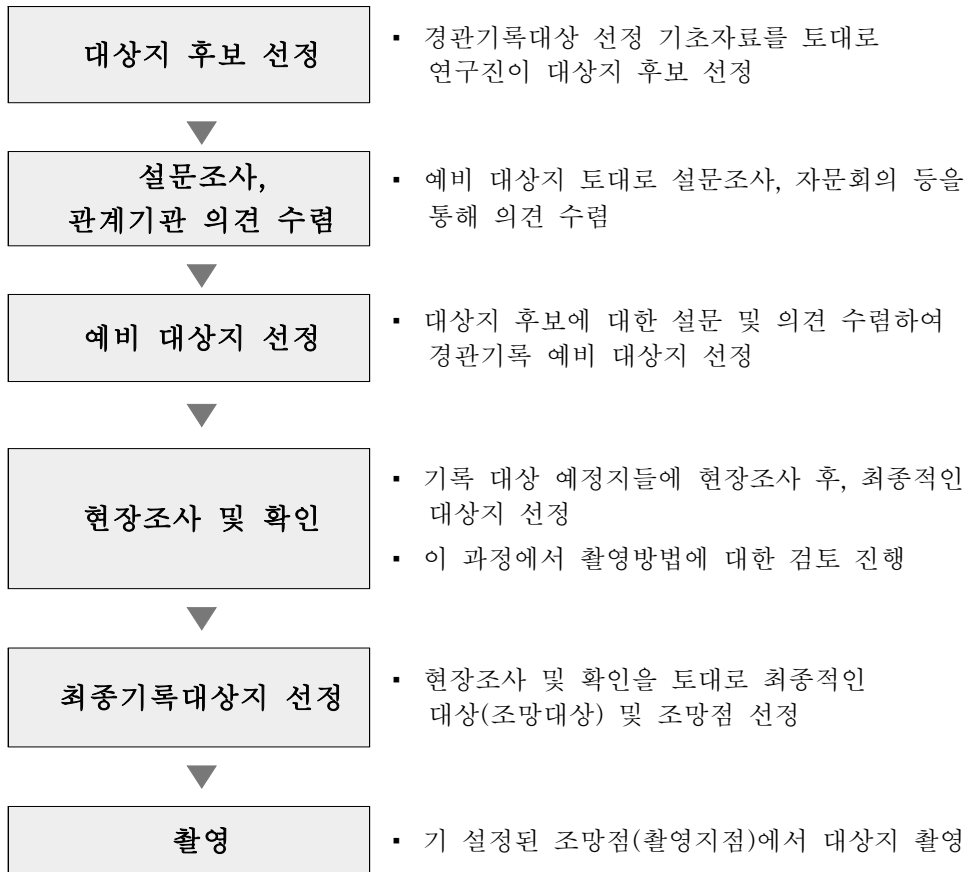
경관/개발 계획서	기타 문헌 역사, 관광	통계 자료	+	매체노출도 신문/인터넷	대내외 인지도 설문/선정기록	+	정책수혜 경관/디자인	현지 조사
30	10	10		10	15		10	15
사업추진단 활용 조사								

(2) 경관기록대상 선정 절차

경관기록대상의 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기록사업은 없으나 각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우선 선정된 후보 대상을 보충조사 및 자료, 시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단계별 기록대상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경관기록대상 관련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기록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관계획이나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지 후보를 선정 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지만, 현장조사에 비중을 두어 통해 최종적인 기록대상지를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기록대상 선정 절차



3. 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기획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록화사업 방향 및 기록대상 선정과 선정 절차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기록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기록화사업은 크게 기록(촬영) 및 생성된 자료의 분류 및 구축, 활용단계로 구분되며 다른 지역의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기록방법에 대한 제안을 구체성 있게 하며 무엇보다 보편적인 활용방법을 넘어서는 방안 도출을 한다.

1) 기록(촬영)

경관기록의 수단은 사진 촬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기록 대상의 규모, 외형적 형태, 촬영 조망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촬영방법과 촬영기자재, 이동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촬영 방법은 크게 일반촬영, 이동촬영, 항공촬영, 수변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기록에는 주로 일반사진과 항공촬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변촬영 기록사진들이 활용되고 있다.

촬영시기 및 시간, 근경·중경·원경에 따른 촬영거리, 카메라 기종 등 투입되는 촬영장비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며 사용된 장비와 촬영 환경은 기록 후 자료에 명기되어 경관기록사업의 핵심인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GPS를 활용하여 촬영일자, 위치 등을 기록하고 디지털 데이터화 시 자료에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방법은 촬영자(장비)의 이동 여부, 피사체와의 관계, 촬영 시점에 따라 다름 [표 60]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록대상이 다양함 따라 촬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획연구들은 개략적인 촬영기법이나 촬영거리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경관 기록 촬영에 참여하는 인력이 전문 포토그래퍼 임을 감안하여 촬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축약하고 있으나 명확한 촬영지시 및 기준의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해안과 산지를 비롯하여 도농복합지역으로 경관기록대상 자원의 유형이 다양하며 촬영기법 또한 다양한 방식이 구사되어야 한다. 광역지자체 사업에서 특정한 카메라 기종이 제시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나 기종이 아닌 카메라 형식에 대한 기준 정립이 요구된다.

[표 60] 기록(촬영)방법

분류	내용	
이동에 따른 구분	일반촬영	- 대부분의 기록대상을 조망점에서 정지 상태로 촬영(Still Shot) -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기록(Eye level)
	이동촬영	- 선적인 경관인 도로축 등을 차량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 - 연속촬영과 동영상으로 구분
	수변촬영	- 해안경관, 수변축 등을 드론 혹은 선박을 이용하여 촬영/이동촬영
	항공촬영	- 규모가 큰 지역이나 대상을 항공기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헬기, RC헬기 이용에서 점차 드론으로 전환되는 추세
피사체와의 관계	촬영거리	- 원경, 중경, 근경, 접사로 구분 - 촬영거리는 기획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을 현장조사 단계에서 조정
	시야 폭	- 광각(Wide lens), 표준(Normal lens), 망원(Telephoto angle) - 카메라 크기 유형에 따라 다르며, 줌렌즈의 보편화로 화각이 다양
	상향각	- 양각(low angle 아래에서 위로 촬영), 부각(high angle 위에서 아래)
촬영 시점	계절별	- 사계절별, 일식 월식 등, 최적의 장면을 얻을 수 있는 시간대
	주야간	- 주간 및 야간 촬영/천연광원이 최적인 시간대 명시
노출 시간	계절별	- 조리개 개방 B, 저속(타임랩스) 촬영, 고속 촬영
별도 장비	인공광원	- 야경 촬영 시 사용되는 인공광원
	위치정보	- GPS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일자, 위치 등을 기록하고 디지털 데이터화 시 자료에 기입

먼저 활용 장비의 기종에 관한 기준 정립의 적절성을 들 수 있다. 특정 기종의 제시보다는 ‘135형 풀프레임 카메라¹²⁾’와 같이 범용성 있는 기준 제시가 적

12) 필름카메라에서는 필름의 크기가 화질을 좌우해 기록용 사진에는 중형 이상 대형 카메라가 활용됐으나 디지털카메라 세대에서는 필름카메라 세대의 135형 카메라의 화질이 확보되면서 이 형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다만 화상을 읽는 센서의 크기가 36*24mm인 풀프레임의 화질을 인정하고 있다.

합하다. 또한 스틸촬영과 스냅촬영이 혼동되고 있어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데 스틸 사진은 정지 상태에서의 촬영을 말하며 스냅사진은 변화하는 장면을 인위적인 연출 없이 빠르게 촬영하여 기록하는 촬영 기법으로 기록사진을 위한 기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기록사진의 대부분은 심도가 높은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하는 안정된 촬영으로 촬영각 및 수평성을 정확하게 하며 높은 화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한다.

렌즈가 대구경화 되어 밝은 줌렌즈가 일상화 되면서 전문 포토그래퍼에게도 줌렌즈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줌렌즈 특성상 일정한 초점거리를 설정하여 촬영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프레임에 채우는 연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규칙한 렌즈거리의 사용은 경관기록화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해당 경관대상을 촬영지점에서 조망하기 적합한 거리와 렌즈각도의 제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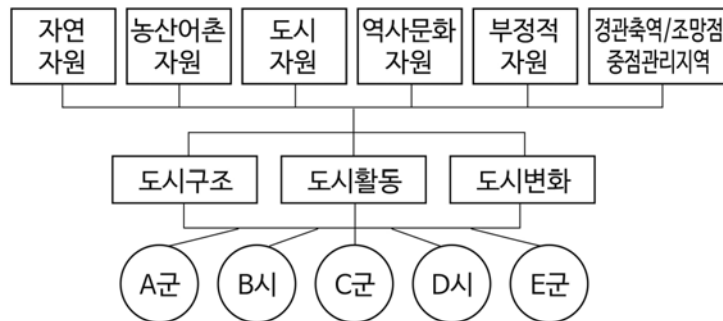
경관 요소 중 특정 장소의 안개가 경관기록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안개로 인해 촬영이 무산되거나 질이 낮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안개 촬영의 경우 안개(해무)의 농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촬영에 사용되는 인공광의 사용여부 및 광원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경관대상에 따라 촬영속도에 따른 기법을 구사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있는 폭포, 야생동물은 고속촬영기법을 구사하며 별자리, 일식 월식 등에는 저속(타임랩스)촬영의 적용으로 양질의 기록물을 생성할 수 있다.

현재 경관기록물의 영상자료 형태가 스틸사진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구글 등 포털에서 제공되는 맵의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로, 길, 해안선과 같은 선적 경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자원은 로드맵 형태의 자료 구축과 건축물과 같은 자원은 360도 VR 이미지, 조망점에서 360도 파노라마 형태의 자료 구축 및 저장이 요구된다.

2) 자료 분류 및 저장

경관기록물의 저장을 위해서는 1차 기록된 기록물의 자료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기록물의 구축 및 원활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게 된다. 기록물의 분류는 아래 [그림 23] 과 같이 중요 경관 대상을 포함한 유형별 자원과 도시의 구조, 도시민의 활동상 및 변화되는 모습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이 위치한 장소인 해당 지역(시·군)에 따라 분류한다.



[그림 23] 경관기록물의 분류 체계

제작 및 관리자 관점에서는 경관계획 또는 기획연구에서 제시된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작업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웹페이지 이용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웹페이지에서의 활용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의 내용을 쉽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기록물의 내용 정보를 숫자나 기호를 이용해 코드화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원의 다원화로 요구되는 촬영 정보 및 표기내용이 과다해짐에 따라 제작 관리 측면의 내부용 정보 체계와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용으로 이원화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분류된 기록물은 모두 디지털 영상물로 적정한 형태의 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압축비가 적정하고 화질의 손상이 적은 jpg(jpeg) 형식을 채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jpg 포맷은 그래픽전문가 그룹에 의해 만들어져 통용되는 스틸화면의 표준압축방식으로 8bit 형태(흑백은 2^8 인 256단계, RGB색상은 3×2^8 인 1,677만 7,216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jpg방식은 압축율이 양호하지만 세밀한 부분의 손상이 발생되므로 사진기록물의 원 데이터인 Raw 형태 데이터의 저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표 61] 사진 기록물 저장 형태

형식	특성	용량	화질
RAW	디지털 카메라에서 생산된 최초의 원본파일, 무손실 압축으로 원본 그대로화질, 용량 2~6배	크다	높다
TIFF	모든 os에서 사용가능한 최초의 파일 형식 이미지 손실이 없는 무손실 압축	↑	↑
BMP(PL, DIB)	MS전용 이미지 저장방식, 압축이 지원되지 않음		
PNG	GIF와 JPG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저장방식 트루타입		
JPG	사진 이미지를 저장할 때 단계별 압축기법을 사용하여 최종결과물 저장	↓	↓
GIF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수를 단순화시켜 저장 용량을 작게 하는 방식(256색상)	작다	낮다

종래에 구축되었던 필름형태, 사진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다른 문자 형태의 기록물의 디지털화 방식과는 달리 전문적인 기자재가 투입되어 고품질의 화질을 유지하는 색상 분해(scan)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물의 활용

일반적으로 경관기록은 디지털데이터화 후 경관기록 홈페이지 상에 자료로 공개되고 있었다. 행정구역도면과 사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촬영위치 확인

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여 지자체 홍보를 위한 화보집을 제작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 62] 기존의 기록물 활용 방안

분 류	내 용
경관기록 웹페이지 구축	- 웹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경관 이해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촬영지점, 경관분석 지점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기획
전시회	- 경관인식 개선을 위해 촬영된 자료로 전시회를 개최
화보집	- 적절한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촬영사진 중 선별된 자료로 화보집 구성

충청남도에서는 기록물의 활용을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계 보다 앞선 세대의 영상 재연방식과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일반적인 영상의 전개방식으로는 이용자의 시각적 요구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속성과 입체감을 결합한 로드맵, 360도 VR, 360도 파노라마 영상물 형태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타 지역, 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민을 대상으로 고장(고향)의 옛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및 이전 가로맵(street map)과 결합하여 옛 주소 및 지번으로 검색 가능하여 활용도 및 이용 층을 넓혀야 한다.

경관기록물이 제공되는 사이트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마을 옛 풍경 전시회’를 통한 주민참여와 사진자료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리 고장 기록사진전 등도 함께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사이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 고장 알기’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63] 기록물 활용 방안 제안

분 류	내 용
영상 수준의 고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 요인인 경관자원의 로드 맵 방식 구축(가로, 해안) - 주요 대상물은 360도 VR, 조망점에서 바라본 360도 파노라마 탑재
흥미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원의 가상 입체 공간 구축하여 실감나는 탐방/이용 확대
감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역,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장의 옛모습 - 옛 주소 및 지번으로 검색 가능, 과거 공간 재현
주민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 옛 사진 전시회를 통한 사진, 옛 지도 모음 기회/데이터 구축 -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리 고장 기록사진 콘테스트
교재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 알기 교재로 확대/수업 진행 방식으로 활용 - 경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성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추진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로서 먼저 경관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시행령, 고시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경관조례를 고찰하여 경관 법령 및 제도에 나타난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 근거를 찾는 한편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충청남도는 본격적인 경관제도를 행정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경관의 실행체계인 공공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을 통해 지역의 미관을 정돈하고 지역 정체성을 가꾸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본격적인 경관법 도입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는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법에 명시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였으며 경관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경관을 체계성 있게 가꾸려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광역도인 충청남도는 지형적으로는 서해라는 해양자원과 내륙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유교문화권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역사를 계승하며 특유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도시와 농촌, 어촌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되고 통일된 정체성을 결집시키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에도 경관이라는 총체적 수단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보존·향상시키며 고유의 지역문화를 토대로 충남만의 규모 있고 차별된 정체성을 정립하고 활용하여야 할 계기와 실행이 요구된다.

경관제도가 지역에 도입된 지 9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관련 행정가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생소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만큼 명확한 구체성과 실체가 모호하며 결과에 대한 효과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경관기록화사업은 동일한 경관사업 범주이면서 이러한 제도와 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매체와 접근기

회를 통해 일반 시민과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관기록화사업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 경관 자료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경관관리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 경관을 다루고 그 효익을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경관을 이해시키고 경관의 가치를 전파시키는 보다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충청남도의 경관기록화사업 도입에 앞서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경관 자원과 현황을 고찰하고 경관기록화사업이 진행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과정을 고찰한 결과, 경관기록화사업을 대비하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여야 할 부문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간접적으로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유추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는 조례 등에 명시하여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나 지자체의 시책사업으로 정하여야 되는데 경관기록화사업의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특히 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시·군으로 파급에 효과적이다.

2. 경관기록화사업의 인식 확대

경관이 지역에 도입된 지 8년이 경과 했지만 실행의 구속력이 부족하고 대단위 사업이 아닌 지방의 소규모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이유로 존재감이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삶의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총체적 수단인 경관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인식이 태동되면서 제도 및 정책을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확대 계기가 요구된다. 현재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의 대상 및 비중의 확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을 통한 커리큘럼 개설로 경관의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여야 한다(충청남도 공무원연수원이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으로 기관 명칭을 개정하면서 교육대상이 공무원 뿐 아니라 도민들로 확대되었다).

3. 기록 체계의 균일성 마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관기록화사업은 균일한 관점과 체계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지이다. 충청남도과 같은 광역도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소재를 일관되게 기록할 기준과 기록방안에 대한 정립과정이 우선 요구된다.

도가 주관하여 시·군을 총괄하고 선도하는 통합적인 경관 유형 및 분류 체계가 마련되고 추진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과제를 통하여 도 전체와 개별 시·군에 통용되는 일관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갖춘 추진 방법 경관 기록 대상 유형의 체계화, 대상 선정 시 판단 및 평가 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

4. 예산 확보 방안

경관기록화사업은 다른 경관계획이나 실행사업과 같이 사업 추진에 따라 수반되는 유리한 평가나 실질적인 결실을 낼 수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다. 기록화사업은 기본 계획 못지 않게 해당 지역의 경관 가치를 재인식하고 역사적 자료 및 지역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실행 사업 항목과 별도로 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광역도라는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광역시 차원과 다른 영역 및 다변화된 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분류 및 가공, 데이터베이스화 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가 주관하고 선도 시·군이 참여하는 기획연구 단계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본격적인 기록화사업 단계에서는 경관자원의 보유 현황 및 사전 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 활용 가능성에 따라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며 충청남도 전체 지역의 경관자원의 기록 및 가공, DB화에 3억 5,000만원 소요가 예상된다.

[표 64] 기획연구 및 기록화사업 소요 예산

단 계	기획연구	기록화사업	활용
추진 내용	유형체계, 대상 선정, 기록 및 저장 방안	대상 재선정, 기록, 자료 분류, DB	아카이브구축, 전시회, 기록물 발간
참여 주체	도+선도 시·군	도+전체 시·군	도, 각기 시·군
소요 예산	1억 2,000만원	3억 5,000만원 (시·군별 2,000~3,000만원)	주체 별 편성

5. 활용의 다각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활용방안이 경관기록집, 전시회, 홈페이지 운영 차원을 이용자의 흥미와 감성을 겨냥한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구축된 자료를 한 방향으로 제공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는 운영방식 및 초등학교를 겨냥한 가상현실 교재 등의 개발로 경관 및 자기 고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초기에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생성된 기록물의 활용은 도에서 통합 운영하는 외에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발간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김기호, 서울모습 사진담기를 위한 기획연구, 2000
2. 김용하, 류재형, 이인재, 한상환, 고인석, 길경훈, 김세훈, 류지민,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기획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 2010
3. 대구광역시, 대구경관자원 52선, 2013
4. 대구광역시, 대구경관자원 52선 사계절 사진자료집, 2015
5. 변일용, “도시를 기록한다-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방향”, 울산발전 36호, 울산발전연구원, 2012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1, 1993
7. 서울특별시, 2015 SEOUL-소통과 어울림. 5년마다 기록되는 서울경관, 그 다섯 번째, 2015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보고서, 2015
9. 인천광역시, 변화하는 인천의 도시모습, 2010
10.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11. 최영은, 대구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추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09.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2013
13. 황기원,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1(3), 135-140, 1989
14. Meinig, D. W.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5. 대구도시경관 <http://daeguview.daegu.go.kr/main.php>
16.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기록보고서
<http://www.daejeon.go.kr/data/urb/ebook/dosi2011/EBook.htm?menuSeq=1347>

17.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 웹 <http://data.si.re.kr/seoulphoto>
18. 울산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웹 <http://www.ulsanarchive.re.kr/main.action>
19. 인천도시경관 아카이브 서비스 <http://field.incheon.go.kr/board/3177>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권영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방재성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6-21 ·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 방안

글쓴이 · 권영현, 방재성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50(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64-3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